

대한민국을
수출합니다.



국산 기본훈련기 KT-1

국산 경전투기 FA-50

7개국 137대 국산항공기 수출

(2016년 7월 누적 수출량)

KT-1, T-50의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태국, 세네갈 수출로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미국 T-X 시장 진출과 KF-X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Fly
Together

2016 SEPTEMBER Vol.201 www.koreaaero.com



Monthly Issue

소형무장헬기(LAH)
기본설계검토(PDR) 회의 개최

KAI Family

오늘은 우리 가족이
일일 목수!

kaiwebzine.com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위의 주소를 넣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POWER OF
KAI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전장의 해결사로 나서다



소형무장헬기(LAH) 기본설계검토(PDR) 회의 개최



소형무장헬기(LAH) 기본설계검토(PDR) 회의가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한국 항공개발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방위사업청 한국형헬기사업단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연구원, 학계 인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회의는 지난 해 12월 개최된 '소형무장헬기 체계요구조건검토 및 체계기능검토 회의'를 통한 기본설계 진입 획득 후 그동안 진행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 결과 기본설계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승인을 획득하였다. 향후 소형무장헬기 개발은 기본설계검토의 후속 조치와 함께 상세설계를 진행할 것이며, 2017년 10월 상세설계검토(CDR) 회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CONTENTS

KAI 百科

- 04 CEO 등장 FA-50 최종호기 룰이웃(ROLL-OUT) 행사 외
- 05 News Focus 서울사무소 외부 강사 초청 특강 개최 외
- 07 KAI 나눔봉사단 News 8월의 사회공헌 활동
- 08 Part 1 APT사업 특집① 항공 알을 낳는 최후의 시장 미 공군 APT사업
- 14 Part 2 소통의 기업문화 사천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한 2박 3일 역사문화 탐방기



KAI Magazine

- 18 World Today 항공 대국을 건설 중인 태평양의 파수꾼, 호주
- 24 기업문화 시리즈 잠들어 있는 창의성을 깨워라
- 26 Global Story 흥행 불파, '픽사'의 성공 비결
- 28 KAI의 달인 기체생산팀3직 조영진 전문
- 30 Fly News 슬라임펄스2 탄소 제로(ZERO) 비행 성공 외



KAI 행복소통지

- 32 KAI Family 오늘은 우리 가족이 일일 목수!
- 38 생생현장팀방 201항공대 기지사무소
- 42 만나봅시다 한복 연구가 박슬녀
- 44 오늘을 부탁해 아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 46 추억의 여행 춘천에서 펼쳐진 두 번째 로맨스
- 49 마음을 전해요 동료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발행인 하성용
발행일 2016년 9월 5일(통권 201호·9월호·비매품)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기업문화팀
담당자 배희운 차장, 구보람 과장(055-851-1609)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제작대행 디자인신화(02-324-6852)
인쇄 삼화인쇄(02-850-0850)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접두윤리강령 및 접두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리온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SEPTEMBER 2016 Vol.201

www.koreaaero.com

CEO MOVEMENTS



09

VOL.201
SEPTEMBER 2016

NEWS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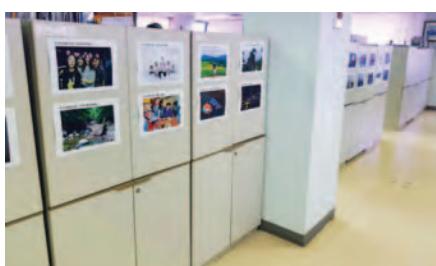
FA-50 최종호기 룰아웃(ROLL-OUT) 행사

지난 8월 9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FA-50 최종호기의 룰아웃 행사가 열렸다. 국내 기술로 제작한 FA-50은 기존 TA-50 전술 입문기에 무장 능력을 더한 경공격기로 정밀유도 폭탄 투하 능력,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 룰아웃 행사에 참석한 하성용 사장은 이날 현장 경영에서 마지막 호기까지 최선을 다한 임직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결품과 리스크 선행 관리를 통해 마지막 호기가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CEO, 록히드마틴 FACO 개소식 참석

지난 8월 16일 하성용 사장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T-50A 록히드마틴 FACO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공군 APT사업의 성공적인 수주를 위한 일정과 비용, 시설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로 린지그램 상원의원, 조월슨 하원의원 및 록히드마틴의 카발로 사장이 함께했다. 이날 하성용 사장은 록히드마틴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APT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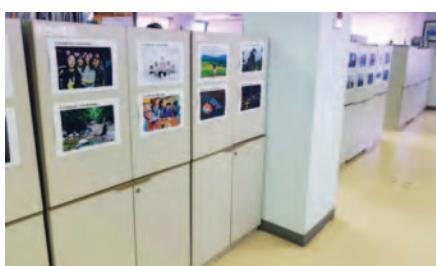
록히드마틴과 수출통제 협의 및 정보 공유

하성용 사장은 8월 17일 록히드마틴의 Crystal City(F-35 전시장)를 방문하여 ITC(수출통제 부서)의 브리핑을 받고 록히드마틴의 수출통제(EL) 전략, 사례 및 관련 법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ECR(Export Control Reform)을 통해 더욱 복잡해진 수출통제 구도를 논의하고, 수출 승인서(Export License) 취득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GE와 수출통제 전략 협의

8월 18일 하성용 사장은 워싱턴 DC를 방문, 수출통제(EL)와 관련하여 GE사 임원진과 협의를 실시했다. 이날 하성용 사장은 항공 업계 경험이 풍부한 GE사의 수출통제 전략을 청취하고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APT사업 및 KF-X사업을 통해 GE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서울사무소, 외부 강사 초청 특강 및 문화행사 개최

서울사무소는 지난 7월 27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초청된 외부 강사는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로 '북핵 및 사드'와 '창조적 디자인과 무기 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신 대표는 국내 사드 배치 문제를 미 국방부 사드 매뉴얼을 토대로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더불어 제품 디자인의 미적 감각이 해외 수출에 미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무기 개발에 있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특강을 마친 서울사무소 전 임직원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 관람 및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조촐한 호프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 및 문화행사는 본사와의 먼 거리로 자칫 부족해질 수 있는 소속감과 애사심을 보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구매본부 하계 휴가 사진 콘테스트 개최

구매본부가 조직문화 활성화 및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하계 휴가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임직원의 즐겁고 유익한 휴가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응모된 사진은 구매본부 사무실(본관 3층, 부품동 동반 사무실, 자재관리 사무실)에 8월 말까지 전시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됐다. 이번 콘테스트는 임직원 서로 간의 즐거운 추억을 사진으로 나누는 것은 물론 다양한 휴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다.

주한 콜롬비아 국방무관 방문

지난 8월 10일 주한 콜롬비아 Carlos Eduardo Montealegre Rodriguez 국방무관과 Kell Soler Linares 육군무관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김인식 해외사업본부장 주관으로 마련한 본 방문은, 수출 추진을 논의하고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논의를 마친 국방무관과 육군무관은 우리 회사의 항공기동, 부품동, 조립동, 격납고 등의 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2공장에서 시뮬레이터를 탑승했다. Carlos Eduardo Montealegre Rodriguez 국방무관은 "앞으로 콜롬비아 공군과 KAI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측이 원하는 바를 잘 이끌어내고, 콜롬비아 하늘에서 KAI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기부 프로그램 'KAI 에비에이션캠프' 진행

대한민국 최초 교육 기부 프로그램인 'KAI 에비에이션캠프'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열렸다. 공군 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캠프는 에비에이션센터 체험관, 시뮬레이터, 항공기동 견학 등의 체험 학습과 항공기 원리, 조별 학습 등 다양한 이론 학습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경남 통영에 위치한 사량도 천문대에서 별자리를 관측하고 고성 공룡박물관을 견학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2010년부터 시작된 'KAI 에비에이션캠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수학·과학 원리를 항공기 개발 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우리 회사는 'KAI 에비에이션 캠프'를 세계적인 교육 기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체험 캠프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곤 책임연구원 '7,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념상' 수상

지난 8월 18일 LAH/LCH ILS개발팀의 김성곤 책임연구원이 미국의 Sikorsky사로부터 '7,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념상'을 수상했다. 김성곤 책임은 육군에서 33년 동안 '8,450시간의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으며, 그중 UH-60 단일 기종으로 7,175시간을 비행한 바 있다. 그동안 김성곤 책임은 Sikorsky사의 UH-60 헬기 관련 한글 교법과 기초 비행 원리 등 여러 교법 작성을 주도하며 육군항공의 전투 발전 업무에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 김성곤 책임은 KAI 지원체계실의 일원으로서 LAH/LCH 비행교법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제32회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방위사업청 차장 주관 제32회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가 8월 18일 서울 방위사업청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를 통해 우리 회사는 'FA-50PH 필리핀 수출 사업 감항성 심사 결과(안)' 및 'FA-50 무장운용 추가영역확장(3단계) 감항성 심사 결과(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각 항공기별 비행 안전성이 확보됨을 최종 확인받았으며, FA-50PH 필리핀 수출기 형식인증서(TC) 및 FA-50 무장운용 추가영역확장 비행운용 감항확인서(SOA)가 발급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감항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국·내외 고객들에게 적기 납품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푸른바다 행복한 동행 '대군 혁신 교육' 실시

우리 회사 혁신전문가(MBB)가 해군 제3함대(목포)를 방문하여 KAI의 우수 혁신활동 사례를 전파했다. 8월 22일부터 5일간 진행한 본 교육은 군에 혁신활동 지식을 맞춤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대의 개선 활동 추진에 기여하는 교육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군 혁신 교육을 실시, 2,200여 명의 육·해·공군 혁신리더를 배출하며 군과 함께 상호 지속적인 기술 공유를 하고 있다.

KAI 나눔봉사단, 8월의 사회공헌 활동



활발한 교육 지원 사업 펼쳐

8월 17일 KAI 나눔봉사단이 사천시 두랑공부방에서 외국어 교재 기증식을 가졌다. 본 기증 교재는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영어학습이 가능한 18권의 교재와 36장의 DVD가 한 세트로, 7개 아동센터(두랑공부방, 두레공부방, 하늘바라기공부방, 창대공부방, 방주아동센터, 꿈샘공부방, CMS아동센터)에게 전달됐다. 영어 교재는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사천 및 산청 지역의 32개 초등학교와 다문화센터 등 아동 시설에도 지급되었는데 이는 총 196개 세트, 4,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나눔봉사단은 지난 6월에는 사천 지역 초·중·고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체능 및 스마트 물품을 전달했고, 7월에는 인도네시아 60개 고등학교에 과학도서 6,000여 권을 기증하는 등 국내·외 인재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정성 담은 빵 만들어, 사랑을 나눠요~

KAI 나눔봉사단이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직십자 서부희망나눔센터에서 진행한 빵 나눔 봉사활동은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직접 빵을 만들어 지역의 소외 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월 1회 실시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받게 된다. 8월에는 정성 담긴 230개의 빵이 사천 지역 7개 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간식으로 기증되었다. 수제 빵을 만들며 가족 간의 정도 쌓고 소외 아동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10월~12월 활동은 9월 말에 신청할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 되새기는 2016년 하반기 헌혈캠페인

KAI 나눔봉사단이 주관하는 2016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캠페인'이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됐다. 본사, 2사업장, 산청사업장에서 임직원 105명이 참여한 헌혈캠페인은 혈액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다.

헌혈캠페인에 참여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신비람마일리지 1,000점, 헌혈증 기증 시 1,000점 추가, 봉사 시간 4시간 부여, 혈액원의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137명(본사 및 2사업장 98명, 산청사업장 39명)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소중한 혈액을 나눴으며, 현재까지 임직원이 기증한 헌혈증은 200여 장에 달한다. 혈액이 긴급히 필요한 임직원은 봉사단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금 알을 낳는 최후의 시장

미 공군 APT사업



APT사업이 그리는 거대한 밀그림

표면적으로 APT사업은 단순히 미 공군이 오랜 기간 운용한 보잉 T-38 타لون(Talon)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그램처럼 보인다. APT사업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도태될 T-38를 대체하기 위해 350대의 신형 훈련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APT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450여 대에 달하는 T-38의 막대한 대체 소요가 한몫을 했다.

미 공군 소요만으로도 향후 전 세계 훈련기 소요를 전부 합친 것에 필적하며 조종훈련 이외에도 다양한 임무에 쓰이고 있는 T-38의 잠재적 대체 소요는 최소 100대 이상이 더해진다. 특히 APT사업의 승자는 세계 최대·세계 최강의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체계 공급자라는 상징성으로 훈련기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게 된다. 더불어 최소 350대를 보장받는 막대한 물량 덕분에

연재 순서

- ① 미 공군 APT사업 현황 및 분석
- ② 경쟁 기종 분석 pt.1
- ③ 경쟁 기종 분석 pt.2

향후 경쟁 기종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생산 물량이 늘어날수록 초기 개발비와 초기 생산투자비의 분산효과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 공군의 3대 최우선 획득 프로그램, 즉 록히드마틴의 F-35로 결정된 JSF(합동 타격기사업), 보잉의 KC-46A로 결정된 KC-X(공중급유기사업)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의 B-21로 결정된 LRS-B(장거리 타격 폭격기사업) 이후 APT사업과 같은 대규모 고정익 항공기 획득사업은 가까운 장래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APT사업을 단순히 막대한 물량과 향후 시장 소요 측면에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APT사업이 그리는 밀그림은 그보다 훨씬 거대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PT는 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선진화된 종합훈련체계다. 동시에 F-35를 도입하는 국가라면 필연적으로 함께 구매할 수밖에 없는 통합훈련 패키지 상품과 같다. APT사업은 훈련기 시장뿐만 아니라 전투기 시장에까지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예고할 만큼 의미가 큰 것이다. 미 공군은 최근 사업 명칭을 T-X에서 APT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APT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가장 진보된 종합훈련체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PT사업과 F-35의 상관관계

미국은 베스트셀러인 F-4와 F-16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시장을 석권했다. 이와 동시



F-35A/B/C는 공군과 해병대, 해군에서 동시에 운용하는 극단적 공통성을 추구했지만 복작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 조종사가 첫 비행을 솔로 비행으로 실시해야 하는 만큼 자상훈련의 핵심인 시뮬레이터는 극단적인 사설성과 정확성을 가져야만 한다.

에 동맹국들에 대해 F-104와 F-5를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자국 중심의 무기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막대한 부가 수익을 창출한 바 있다. 이처럼 우수한 미국제 전투기들이 당대의 표준 전투기로 여겨지며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되었지만 이 기체들을 조종할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기 시장은 달랐다. 궁극의 조종훈련을 담당하는 고등훈련기라 하더라도 중소형 기체 크기를 가져 제작하기 쉬울뿐더러 복잡한 항전장비나 높은 생존성이 요구되는 기체가 아니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훈련기를 자체적으로 개발·운용했다. 개발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훈련기 시장은 언제나 많은 기종이 나름대로 의 시장을 세분화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선에 배치된 군용기의 복잡화, 첨단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F-22, F-35로 대표되는 최첨단 5세대 전투기의 등장은 전투기 시장뿐만 아니라 훈련기 시장의 판도를 덩달아 흔들고 있다. 기존 전투기는 고성능의 항전장비와 기동성·타격력 중심의 개발 요구도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반면 5세대 전투기부터는 초고성능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다양한 최첨단 센서들을 융합·활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육·해·공 플랫폼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정보 관리가 핵심 능력이 되고 있다. 이는 만들기 쉽고, 복잡한 항전장비를 탑재할 필요 없었던 기존 훈련기로는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은 기존의 훈련기로는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탑재 장비가 대폭 개량된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 조종훈련만 하더라도 기존의 훈련기만으로는 조종사 훈련을 마무리할 수 없다. TA-50 전술입문기 도입 이전 KF-16을 기종 전환 및 작전기능훈련(CRT) 기체로 운용했던 우리 공군의 사례처럼 일선의 기체를 부분적으로 전용하기도 한다. 유럽 13개국이 미 공군에 조종훈련을 위탁하는 ENJJPT(Euro-NATO Joint Jet Pilot Training) 프로그램도 좋은 예다. ENJJPT는 본래 비용 절감과 미국·유럽·NATO 간 상호 운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자국 고등훈련기로 첨단화되는 전투기에 조종훈련 역량을 맞추는 것 이 점점 한계에 직면하면서 위탁 교육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미 공군마저도 고등비행훈련 18개



F-22와 F-35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의 등장은 T-38를 비롯한 기존 훈련기에 의한 조종훈련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제 중 12개는 T-38로 수행이 불가능하여 학생 조종사가 조종하게 될 기종으로 구성된 정규 훈련부대(Formal Training Unit)에서 나머지 과정을 별도로 밟아야 하는 실정이다.

F-35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APT사업의 거대한 막그림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F-4, F-16의 성공적인 시장 장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F-35는 미국이 수출하는 유일한 5세대 전투기이다. F-35 도입을 통해 미래 전장을 준비하려는 국가들의 훈련기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과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게다가 4.5세대에 이르는 전투기의 조종훈련이 복좌훈련형 기체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F-35는 복좌형이 없다. 비행훈련 중 교관이 후방석에서 동승 비행하며 밀착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조종사는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비행 성숙도를 지상에서 달성한 뒤 비행해야 한다. APT사업에서 지상훈련체계(GBTs: Ground Based Training System)가 크게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조종훈련 패러다임의 시프트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F-35를 도입할 국가들은 APT 사업에서 채택된 훈련체계에서 최적의 훈련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앞서 설명한대로 APT사업이 전투기 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APT사업의 패자는 종전의 독자적인 훈련기 시장이 아닌 F-35와 마치 패키지 상품처럼 묶여 전투기 시장에 종속되고 잠식당한 훈련기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거꾸로 APT사업의 승자에게는 기존의 훈련기 시장에만 한정되던 시장 영역이 F-35와 패키지가 되어 전투기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시장이 주어지는 것이다.

T-38과 APT사업

T-38이 미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1961년이니, 이른바 노인 학대의 대명사라는 B-52 폭격기 못지않은 운용 기간을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T-38은 1972년까지 미군에만 무려 1,100대 이상이 도입됐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량을 거듭해 현재 주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최신에 글래

스 콕핏을 갖추고 항전장비가 개량되어 2002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T-38C다. T-38C로의 개량은 매년 꾸준하게 이루어져 현재는 50대의 T-38A를 제외하고 453대의 T-38C가 일선에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미 공군이 T-38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 것은 T-38C의 성능 개량보다는 수명 연장이다. 어차피 고도화된 5세대 전투기들에 대한 비행훈련 과제의 상당수는 T-38C로도 끝낼 수 없어 해당 기종에서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모든 T-38 전력은 2030년 이전에 모두 도태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성능 개량에 대한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Pacer Classic'이라는 이름으로 1984년부터 시작된 T-38C 수명연장사업은 최근 3단계인 Pacer Classic III (PCIII)로 이어지고 있다. PCIII는 지금껏 실시된 T-38 수명연장사업 중 가장 대규모이면서 기체 각부의 가장 넓은 범위에 수명연장이 실시되는 사업이다. PCIII 작업이 실시된 첫 T-38C가 2015년 7월 공개된 바 있으며, 2021년까지 150대 이상의 T-38C가 PCIII 작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T-38C는 2030년 도태 전까지 안정적인 기체 내구성을 확보하게 된다.

APT사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RAND연구소에서 2005년 내놓은 보고서 〈장차작전에서의 훈련기 요구 영향성 연구(Assessing the Impact of Future Operations on Trainer Aircraft Requirements)〉를 만나게 된다. 이는 미 공군 교육훈련사령부가 T-38을 수명연장을 통해 계속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체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T-38은 기골 보강과 개량을 통해 여전히 대부분의 기종에 필요한 훈련 성과를 낼 수는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고기동성을 갖춘 F-22의 경우 T-38로는 F-22에 맞는 고기동훈련을 소화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의식상실(G-LOC)의 우려가 높으며 F-16을 활용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고서는 F-22와 F-35는 복좌형이 없고 최첨단 플라이-바이-와이어 비행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조종 계통을 가진 항공

기와 고도의 지상훈련체계 추가 소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T-38을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기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 이 바로 APT사업의 태동이었다. 현재 미 공군 조종사들은 T-6 텍산 II로 UPT(Undergraduate Pilot Training) 과정을 공동적으로 밟고 있다. UPT 수료 이후 전투기·폭격기 조종사들은 T-38로 고등비행훈련을, 공중급유기·수송기 조종사

NSAWC(Naval Strike and Air Warfare Center)에서 테스트기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각종 테스트 모니터링을 위한 추적기(Chaser Aircraft)로 운용하고 있다.

APT사업의 잠재 소요

앞서 열거한 T-38의 임무는 대부분 APT사업이 승계할 것이다. 더불어 2015년 3월에 공개된 APT



2



1

는 비치크래프트/레이시온 T-1 제이호크 (Jayhawk)로 고등비행훈련을 받는다. T-38은 현재 미 공군 교육훈련사령부 예하 16개 비행대대와 예비군사령부 예하 5개 대대에서 고등비행훈련과 전투기본과정(IFF: Introduction to Fighter Fundamentals)을 수행한다. 조종사 훈련임무 외에도 T-38의 활용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른바 'Companion Trainer'라 불리는데 운용 비용이 고가인 F-22의 운용 부대(제352전투비행단)와 B-2A 스텔스 폭격기 운용 부대(제509폭격비행단)에 소속되어 부대 운용비 경감을 위한 대체비행훈련용 기체로 운용되고 있다(제325전투비행단의 T-38은 F-22의 가상적기 임무도 병행). 또한 비행이 매우 까다로운 U-2 정찰기의 대체비행훈련용으로도 쓰이며 미 공군 물자사령부와 미 해군

APT Success Points

1 NASA의 T-38은 각종 테스트 플랫폼과 함께 비행하며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거나 육안 관찰 임무 등을 수행하는 추적기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 B-2A의 유일한 운용 부대인 화이트맨 미 공군기지의 제509폭격비행단 소속 T-38이 B-2A와 비행하고 있다. B-2A의 비행 시간당 비용이 13만 5,000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행훈련은 운용비 절감을 목적으로 T-38을 통해 대체비행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F-22나 U-2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T-38의 마지막 수명연장사업이 될 PCIII. 조종석을 감싸는 기골부터 중앙동체 벌크헤드까지 사실상 하중이 걸리는 거의 모든 부분이 신제품으로 교체된다.



3

사업의 요구 성능에는 사업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이유로 가상적기 옵션이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미 공군은 2016~2020 회계연도에 약 2억 2,0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APT사업에 가상 적기 임무 수행을 위한 레이더와 데이터링크, 무장 및 재밍포드 등을 탑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8 회계연도에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리 간급한 소요는 아니다. 미 공군은 2014년 F-15를 운용하던 제65가상적 기비행대대를 예산 문제로 해편시킨 뒤 F-16C 초기형을 유일한 가상적기로 운용하고 있으며, 미 해군은 F-5와 F/A-18A+/B를 가상적기로 운용 중에 있다(참고로 제65가상적기비행대대의 F-15는 주방위공군 제194전투비행대대로 이관돼 가상적기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가상적기 임무는 ATAC, 드라肯 인터내셔널, Air USA와 같은 민간 가상적 기 서비스업체가 미 공군·해군과 비정기적 계약을 통해 대신하고 있다. 미 공군과 해군은 가상 적기 항공기들이 기본적으로 기령이 높은 기체들인 만큼, 향후 이들의 도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APT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APT사업이 향후 미 해군과 해병대의 보잉 T-45 고스호크(Goshawk)까지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추측이다. T-45는 잘 알려진 것처럼 영국 BAE 시스템즈의 호크를 기반으로 맥도넬 더글拉斯(현 보잉)가 함재훈련기로 개조한 기체다. T-45가 신형 기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호크 중에서도 비교적 오래 전인 1981년부터 모습을 드러낸 파생형인 MK.60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후된 기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크는 애초부터 함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T-45는 호크와 사실상 완전히 다른 기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개조가 이루어진 기체다. 또한 T-45가 미 해군과 해병대에 채용된 것은 1991년이지만 마지막 221번째 기체가 해군에 인도된 것은 2009년의 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200여 대의

T-45는 이미 70대 이상이 최신예 글래스 쿡핏과 HUD를 갖춘 T-45C로 개량을 마쳤고, 그 수량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해상 운용과 항모 이착함 등 T-38에 비해 거친 환경에서 운용되는 특성상 T-45가 T-38과 같은 운용 기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없지는 않았다. 이미 2006년에 T-38과 T-45를 APT사업 단일기체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기획득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미 해군과 미 공군의 기종 단일화가 과거 F-4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요망하는 결과를 거둔 적이 없다. 따라서 T-45의 대체가 지금보다 더 시급성을 갖는 상황이라 가정해도 국방성 내부에서 T-45를 APT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미 해군은 T-45C로 개량할 기체 수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수명연장프로그램(SLEP)도 착실히 진행

해 최소 2035년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APT사업의 잠재 소요에 T-45의 대체 소요가 반영되는 것은 매우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APT사업의 잠재 소요는 다른 곳에서 도출할 수 있다. 바로 F-35를 도입할 수 없는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중소 국가에게 필요한 F-16급 전폭기 소요가 그것이다. F-16은 2016년 주문량 기준으로 2019년 생산이 종료된다. 추가 주문이 있다면 F-16의 생산라인은 좀 더 유지될 수 있겠지만 생산 종료가 임박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때 APT사업은 F-16 단종 이후 미국제 F-16급 전폭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APT사업의 요구 조건은 웬만한 전투기의 수준에 필적하므로 약간의 개조만으로도 중소 국가의 최일선 전투 자산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APT사업은 미래 전투기의 필수 조건인

AESA 레이더나 실질적 무장운용을 위한 화력제어시스템 전투 체계 탑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훈련 목적 달성을 위해 레이더 및 화력 운용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상으로 구현될 뿐이다. 따라서 APT사업이 실질적인 F-16급 전폭기 소요를 충족하려면 대대적인 추가 개발이 필요하므로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APT가 매우 장기간 생산·운용될 기체라는 점, 훈련기 특성상 임무 확장성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F-16 단종 이후 F-16급 전폭기 소요가 크다는 점을 볼 때 APT사업의 장기적 잠재 소요로 간주될 수 있다.

APT사업의 자격

앞서 설명한대로 APT사업의 태동은 2000년 중반이다. T-38의 노후화와 산발적으로 터지던 T-38 추락사고로 인해 APT사업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문제로 좀처럼 본격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T-38의 임무 가능률이 75%에 그치면서 T-38에 의한 조종훈련 자체에 상당한 개선 소요가 도출되자 APT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업계가 기다리던 요구 성능이 2015년 3월에 공개된 바 있다. 기본적으로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고 T-38보다 10% 연료를 적게 소모해야 할 APT사업의 요구 성능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높은 비행하중(G) 유지능력(6.5G 기준),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의 시뮬레이터 시현 성능 그리고 장기간 운용 가능한 기체 내구성이 그것이다. 특히 비행훈련에 관련해서는 5세대 전투기 훈련에 적합하도록 통합센서와 데이터링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기대운용기간을 의미하는 내구성은 당시 미 공군 교육훈련사령관이었던 로빈 랜드 장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50년 이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미 공군이 APT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을 두는 것은 투명한 획득프로세스를 통해 비용과 성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군장관 드보라 제임스는 최적 비용의 획득 프로세스 구축과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골자로 하는 'Bending the Cost Curve' 구상을 통해 APT



3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APT사업 준비를 위해 APT사업의 요구 성능 조안이 2012년 공개됐고, 당초 계획된 제안요청서(RFP) 교부는 업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해 12월 말로 연기됐다. 업계와의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KC-X와 LRS-B가 겪었던 진통에 따른 것이다. KC-X와 LRS-B는 워낙 대규모 사업이었고 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었던 만큼 경쟁은 치열하고 각종 로비가 횡행했다. 또한 획득프로세스에 조금 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선정 결과에 업체가 승복하지 못하고 미 회계감사원(GAO) 등에 제소나 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획득프로세스의 신뢰성이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이러한 경우 사업비 통제가 관건인 대규모 획득사업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미 공군은 APT사업 역시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미 공군성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KC-X와 LRS-B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울러 APT사업이 단순히 낮은 가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성능과의 밸런스를 중시한다는 점은



1 미 해병대에서 가상적기로 운용 중인 F-5N. 다양한 유형의 적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종의 가상적기가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속적인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2 미 공군의 T-38과 성격이 매우 다른 데다가 독자적인 훈련 체계를 갖는 미 해군·해병대의 T-45를 APT사업의 대체 소요로 보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

3 'Winner takes all'. APT사업의 승자는 훈련기 시장을 석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잠재 소요를 통해 막대한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제안요청서 조안에서 잘 드러난다. 평가 항목 중 요구 성능을 상회하면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역시나 투명한 획득프로세스를 강조한 APT사업답게 항목별 인센티브 기준 금액까지 명시했다. 예를 들어 최대 비행 하중 기준인 6.5G에서 0.1G를 올릴 때마다 1,320만 달러를, 7.0G 이상부터는 0.1G를 올릴 때마다 440만 달러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며, 상한 비행 하중 기준인 7.5G까지 올리면 8,800만 달러의 인센티브가 책정된다. 인센티브는 고스란히 업체의 제안가에서 차감돼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업체 입장에서는 제안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미 공군 입장에서는 성능 강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APT사업에는 KAI/록히드마틴의 T-50A, 레이시온/레오나르도 핀메카니카/CAE의 T-100, 보잉/사브 컨소시엄, 노스롭 그루먼/BAE 시스템즈/L-3 컨소시엄이 겨돌한다. 스콜피온(Scorpion)을 제안 하려 했던 텍스트론에어랜드는 APT사업의 요구 성능을 도저히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최근 입찰 철회를 시사했다.

미 공군의 APT사업 최종 기종 선정은 2017년 말 발표될 예정이다.



KAI 나눔봉사단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함께한 2박 3일의 역사문화 탐방기

지난 3월 창단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KAI 나눔봉사단이 이번에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손잡고 다문화 가정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문화 탐방을 떠났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친란한 문화유산이 가득한 경주와 고유의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안동에서 보낸 시간을 담았다.

글 한글 사진 안종근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자율 봉사 방식으로 이뤄 지던 사내 봉사 동호회를 회사 차원의 활동으로 격상시켜 'KAI 나눔봉사단'을 창단했다. 나눔봉사 단은 장학분과, 봉사분과, 재능분과 총 세 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장학사업 부문은 학교법인 장학 지원, 불우 아동 멘토링, 소외 아동 결연 등을 지원한다. 이번 역사문화 탐방은 그 일환으로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한국의 역사 를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문화의 경험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자는 취지이다.

28일 아침, 에비에이션센터에 집결한 30명의 아동들은 출정식을 마치고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천 년의 고도 경주에서 불교 유적지 불국사와 석굴암을 관람했으며, 다음 날에는 안동으로 이동해 하회탈 박물관과 마을 탐방,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역사 탐방뿐 아니라 '창의와 인성'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되었으며, 무더위를 식혀 줄 워터파크에서의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남긴 역사문화 탐방 소감

정문숙 양(사천여자중학교 1학년/필리핀) ● 2박 3일 동안 경주와 안동을 여행하고 탐험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한번 더 느낀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안동의 하회마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하회마을을 구경하며 조상들이 살았던 집을 보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감탄을 하며 다리 아픈 줄 모르고 구경 질렀습니다. 제 꿈은 칼럼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탐방을 하며 저는 자신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칼럼니스트가 되어 안동을 다시 찾아 농암종택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겠다는 다짐입니다. 멋진 기사를 쓰는 제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의 어름 끝자락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KAI 아저씨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성승철 군(용남고등학교 2학년/일본) ● 처음으로 경주와 안동을 가게 되어 떠나기 전 기대가 커집니다. 그리고 경주에 와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니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석굴암을 갔을 때 그 느낌은 그냥 입이 벌어져서 닫히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멋있었어요. 석굴암 본존불이 유리로 막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보고 나니 뭔가 뿌듯한 감정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서 틸박물관을 구경했는데 안동이 틸춤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안동찜닭, 농암종택에서의 하룻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정 양(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2학년/필리핀) ● 불국사에 가서 교과서에 나오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멋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탑을 만든 것을 보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다녀오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과 고택 체험도 했는데 우리 조상의 지혜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저도 크면 이런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KAI 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Mini Interview



“나눔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KAI 나눔봉사단 구관혁 사무국장

“이번 역사문화 탐방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하는 구관혁 사무국장.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었다.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한 봉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눔봉사단을 정착시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눔봉사단은 공급자 중심의 봉사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눔봉사단이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문화 해외 여성들의 자립을 돋는 아열대작목반 창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 프로그램, 노약자들이나 소외 계층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재활훈련장 등은 단순한 나눔의 차원을 넘어 여럿이 함께 힘을 모으면 꿈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구관혁 사무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나눔 활동도 한번 해본 사람이 또 하기 마련입니다. 나눔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눔봉사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길”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이정기 센터장

2004년에 문을 연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사천 지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실을 비롯해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과 창업 교실까지 한국에 빨리 정착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프로그램 중심이다.

“KAI와는 이번이 두 번째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7월에 인도네시아 60개 고등학교에 6,000권의 도서를 기증하는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기업과 결연을 맺은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사실 해외 프로젝트나 오늘 진행하는 문화탐방 등 많은 일들은 마음만 있었지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KAI의 후원이 있었기에 이를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미중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정기 센터장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내국인들과 잘 어우러지는 통합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이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저희 센터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훗날 KAI에서 근무하는 아이도 있지 않을까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역사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피어난 자부심

여름의 정취가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하는 8월의 끝자락.
경주와 안동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다문화 가정
30명의 아이들이 그 주인공.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나
안동에서 즐거운 여정을 사진으로 담았다.



불국사 한 바퀴
대웅전을 지나자 불경을 강의하는 무설전, 관세음보살을 모신 성전인 관음전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커다란 불상을 보며 “와~”하는 감탄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동안 삼삼오오 손을 잡고 걸으며 저마다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불국사 삼매경에 빠지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니 자하문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대웅전으로 들어가니 오랜 역사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석가탑과 다보탑이 아이들을 맞았다. 경내를 본격적으로 둘러보며 불국사 구경이 한창인 아이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열대야를 날려준 천렵 체험
둘째 날 마지막 일정은 우리의 세시풍속인 ‘천렵’ 체험하기다. 더위를 피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냇가에서 고기를 잡는 놀이로, 아이들은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숙소 근처 계곡에 그물을 치고 고기 잡기에 열중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만나다
사천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경주 불국사 정문 앞에 도착하자 오렌지색 티셔츠를 차려 입은 아이들이 활활 웃음을 머금은 채 차에서 내렸다. 책에서 보았던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본다는 생각에 한껏 설레는 표정이다. 어서 빨리 불국사를 보고 싶어 부리나케 경내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공부하며 탐방해요~
경내를 본격적으로
들러보기 전 해설사
선생님이 신라의
역사와 불국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문제를 내고 질문에
답하는 재미있는 해설
시간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하회마을 나들이하며
기념사진 찰칵!**
2010년 8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아이들은
하회탈박물관을
관람하고 탈 공연도
감상했다. 고풍스러운
양반 가옥의 운치에 푹
빠진 아이들은
다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오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탐방 소감 작성하며 아쉬운 작별을
이번 탐방의 마지막 일정인 소감문
작성 시간. 아이들은 2박 3일의
짧은 일정을 간단히 저마다의
소감을 빠르게 적었다.

신나는 물놀이로 여름아~ 안녕!
모두가 기다렸던 물놀이 시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아이들은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
풀기를 마친 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 나개 수영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미끄럼틀 타며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와~
시원해요!” 침벙거리는 아이들의
순동작과 발동작이 날렵했다.
시원한 물줄기가 늦여름의 더위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WORLD TODAY



항공 대국을 건설 중인 태평양의 파수꾼

호주



글 조문곤 항공전문기자



호주가 태평양에 고립된 대륙이 아닌 태평양의 파수꾼으로서 전 세계 어디든 전투력을 투사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플랫폼인 KC-30A와 호주 공중타격력의 미래 F-35A가 선회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태평양의 파수꾼

정식 명칭 'Commonwealth of Australia'와 호주 국기의 좌측 상단에 그려진 영국 국기 '유니언 잭'에서도 알 수 있듯 호주는 56개의 영연방국가 중 하나이자 그중에서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16개국 중 하나이다. 이미 오래 전인 1942년 호주는 영연방국가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한 웨스트민스터 협정(St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1942)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영국과 분리된 바 있다. 이후 1986년 영국의 회에서 통과된 호주법(Australia Act)에 의해 독립 주권국이 되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 역사의 종속성은 완전히 청산됐다. 하지만 호주는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많은 분야에서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호주의 군사력 투사는 대부분 해외 파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미국·영국

주도의 각종 분쟁에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의 잠재적국으로 여겨지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이다. 호주는 1966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전쟁에서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말레이시아를 지원했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 문제로 진통이 컸던 동티모르 사태 때도 동티모르를 지원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숙적 관계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브레이크 없는 군사력 확장에 따라 2010년을 전후로 인도네시아가 아태 지역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호주·인도네시아 관계는 상당한 호전 추세를 보였다. 호주·인도네시아 간 연합공중전 훈련인 엘랑 오신도 훈련(Exercise Elang Ausindo)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이 좋은 예이다. 이와 함께 호주에서 열리는 아태 지역 최대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블랙훈련(Exercise Pitch Black)에 미국, 싱가포르, 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참가하고 있다. 호주는 전술 노출의 우려로 피치블랙훈련에 러시

아제 군용기의 참가를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었지만 2012년 훈련에서 러시아제 기체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군의 최신형 Su-30MK2의 훈련 참가를 승인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유례없이 돈독해지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인도네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제고되고 잠재적국으로서의 대인도네시아 전략이 상당 부분 희석됨에 따라 호주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적 공



2012년 피치블랙훈련에서 편대비행 중인 호주 공군의 F/A-18A와 인도네시아 공군의 Su-30MK2.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호주·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와 함께 편대비행 중인 호주 공군의 F/A-18A. 중국·일본 간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호주와 일본 간의 군사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 건설과 전투기·함정 배치 등 군사력을 크게 증강함에 따라 미국·일본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범세계적인 군축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 동맹국들의 군사력은 국방비 삭감과의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반면, 이를 역행하는 중국의 군비 확장을 막는 것은 점점 힘에 부치는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시무시한 규모와 속도로 항공력과 해상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호주는 아태 지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미 동맹국들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미국은 2011년 호주 북부 다윈(Darwin)에 미 해병 기동부대를 순환배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더 나아가 폭격기와 공중급유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는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아태 지역에서 전략적 기동성을 갖춘 미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 구현을 위해 호주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다. 미국이 호주에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도 태평양 전략에 호주를 편입시키고 방위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를 놓고 미·중 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불가피하다. 2016년 2월 발간된 호주의 국방백서에는 미·중 관계를 호주 안보 환경의 주요 변수로 꼽고 있는데 정작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국은 호주가 국방예산

을 대폭 늘려 항공력과 해상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데에는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군비확장이 주변국에 우려를 사고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해 중국을 분노케 한 이전 백서들과는 상당히 대비된다. 호주에서도 중국에 대항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만큼이나 중국과의 밀접한 상호 경제 의존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중국의 군비 확장이 호주의 국익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호주 국민들의 시각차가 상당한 편이다.

2015년 9월 토니 애벗 총리를 물리치고 신임 총리에 오른 말콤 턴불은 강경파인 토니 애벗과 반대로 온건파이며,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호주 국방장관에 오른 마리스 페인 역시 외교·국방·통상위원회 출신 온건파다. 향후 미·중 관계를 사이에 두고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호주의 행보가 매우 흥미로워지는 대목이다.

최첨단·최신예·최고 수준의 항공력 건설

호주는 국방백서 2016을 통해 향후 10년간 호주 군이 나아갈 청사진을 공개했다. 총 투자 예산은

약 1,950억 호주 달러(약 166조 원)에 이르며, 그 중 항공력에 투자될 예산은 최대 561억 호주 달러(약 48조 원)에 달한다. 역시나 항공력에 대규모 투자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분명 도전적인 야망이다. 그 어느 국가는 국방백서에 담기는 내용은 군의 전술적·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며, 이를 위해 현실화 여부를 떠나 매우 도전적으로 기술되곤 한다. 그러나 호주가 그간 군 현대화에 투자한 예산 규모와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성장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호주의 항공력 증강 계획은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 호주의 국방예산은 2009년 GDP 대비 2.3%로 역사적 고점을 찍은 이후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GDP 대비 1%대에 머물러 왔다. 이에 말콤 턴불 총리는 "역내의 안보는 균형이 핵심이며 균형을 위한 역할에는 강력한 호주가 되는 것이 필수"라 강조하며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국방백서는 2020년을 전후로 호주의 국방예산을 GDP 대비 2%대로 회복할 것과 이를 위해 종전의 국방예산 규모와 속도를 뛰어넘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 항공력의 오늘이 바로 미래이고, 호주 항공



2016년 5월 6일 호주 공군용 P-8A의 첫 비행 순간. 세계 최강의 해상초계기인 P-8A는 아태 지역에서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호주 공군의 핵심 플랫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8대 도입이 확정됐고 2020년을 전후로 총 15대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력의 미래가 바로 오늘이다. 현재 기존 항공력을 완전히 갈아엎는 수준의 혁신적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플랫폼은 최첨단, 최신예, 최고 수준 이 세 단어로 압축된다. 주요 기종 보유 및 주문 현황에서 보이듯 몇몇 기체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이내에 획득이 결정돼 도입이 예정되어 있거나 도입 중에 있는 플랫폼이 대다수이다. 뿐만 아니라 항공력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결론 내린 항공기의 경우 세계 최초, 혹은 두 번째로 도입을 결정할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인 것도 특징이다. 호주는 조기경보통제기 E-737(호주 공군명 E-7A Wedgetail)과 공중급유수송기 A330 MRTT(호주 공군명 KC-30A), 해상작전헬기 MH-60R 등을 도입한 최초의 해외 국가이며 장거리수송기 C-17A와 해상초계기 P-8A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입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호주는 해외 국가로는 F/A-18F 슈퍼호넷을 도입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다만 슈퍼호넷 도입의 동기는 다른 기체들과는 사뭇 다른 것은 사실이다. 본래 슈퍼호넷 도입은 계획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2년까지 전량 퇴역할 F/A-18A/B와 F-111C(2010년 퇴역)를 동시에 대체하기로 한 F-35A의 도입이 지연되면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F-35A의 경우 F-35를 도입하려 했던 거의 모든 국가가 그랬듯 개발 지역과 가격 폭등에 따른 논란으로 도입 수와 도입 시기를 확정하는 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2009년 F-35A 도입이 결정됐고 도입 대수는 변화를 거듭하다 72대로 확정됐다. 호주 공군은 항후 28대를 추가 도입해 총 100대, 4개 비행대대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보유 기종 현황을 볼 때 항공 대국이라는 위상에 다소 걸맞지 않게 기종의 종류는 많지 않고 할 수 있으나 각각의 플랫폼은 어느 국가든 도입을 희망하는 세계 최상위 성능의 플랫폼들 일색이다. 선택과 집중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신에 플랫폼들을 다양으로 도입하고 있

는 호주에 대해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호주는 마치 무기를 쇼핑하듯이 마구 사들이는 중동 국가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호주는 일찍이 자국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정책을 꺼냈다. 방위 산업 특성상 기술 수준 및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자국 방산업체들이 독자적인 자생력과 수출 경쟁

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수준의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수의 메이저 방산업체를 자국에 유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Lockheed Martin Australia Pty Limited, Boeing Defence Australia, Raytheon Australia, Airbus Group Australia Pacific, BAE Systems Australia, Thales

주요기종 및 보유 및 주문 현황

기 종	보유	주문(확정)
공 군		
F-35A	전폭기	2 70
F/A-18F	전폭기	24
F/A-18A	전폭기	54
EA-18G	전자전기	2 10
E-7A 웨지테일(E-737)	조기경보통제기	6
P-8A	해상초계기	– 8
AP-3C	해상초계기	15
KC-30A(A330 MRTT)	공중급유수송기	5 2
C-17A	수송기	8
C-27J	수송기	2 8
C-130J	수송기	12
킹에어350	수송기/훈련기	8/8
F/A-18B	훈련기	15
호크127	훈련기	33
PC-9	훈련기	59
PC-21	훈련기	– 49
육 군		
타이거	공격헬기	22
벨206	다목적헬기	19
NH90	다목적헬기	33 14
UH-60A/S-70	다목적헬기	34
CH-47D/F	수송헬기	6/7
EC135(HATS)	훈련헬기	1 14
해 군		
MH-60R	해상작전헬기	24
S-70	해상작전헬기	16
MRH-90	다목적헬기	6+7(육군과 공유)
AS350	훈련헬기	12

Source: Flightglobal World Air Forces Data Base 2016

Australia, Saab Systems 등 유수의 방산업체가 호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해외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업체들과 다른 점은 도입이 결정된 무기 체계의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사무소(Program Office)나 홍보·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하는 지사가 아닌 자회사라는 점이다. 이 회사들은 호주에 별도의 생산 시설을 두거나 호주 방산업체들과 현지에서 물량 및 기술을 공유한다. 호주가 도입하는 항공기들은 직도입하는 기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회사와 호주의 방산업체들이 플랫폼의 일부를 직접 생산하거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호주 현지 생산 물량은 해외 메이저 방산업체의 최종 조립시설로 이송되었다가 완성이 되면 다시 호주로 정식 인도된다. 이로 인해 획득 비용은 다소 상승하지만 메이저 방산업체의 매출은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호주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하고 기술 공유를 통한 자국 방위산업 기술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당연히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대규모의 청정비와 일부 개량사업을 자국에서 실시할 수 있어 군의 예산을 절감하고 플랫폼들의 가동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갖는다. F-35의 아태 지역 MRO 거점이 호주에 설치된 것이 좋은 예로, 호주의 독특하고 장점이 확실한 방산 환경을 고려하면 호주의 F-35 MRO 거점 확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고 호주가 자국 방산업체의 자생력을 해외 메이저 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는



기존의 S-70B-2 시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1억 달러 규모로 도입한 호주 해군의 MH-60R. 최근 마지막 24번째 MH-60R 인수를 마쳤다. 호주는 MH-60R 도입을 결정한 최초의 해외 국가이다.



호주는 F-35 프로그램에서 '레벨 3' 국가로 분류돼 표면적으로는 위상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호주 현지의 록히드마틴 자회사와 호주 방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F-35 개발·생산·테스트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호주에 설립이 결정된 MRO센터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자국 방위산업을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 조직인 DEU(Defence Export Unit)를 창설한 바 있다. 현재는 AMSO(Australian Military Sales Office)로 명칭이 바뀌어 있으며 해외의 각종 방위사업 입찰 및 산업 교류를 위한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잠재 수출국에 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방위물자 수출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식별해 수정한다. 한편 호주의 방업체들은 불필요한 경쟁과 수출 활동 일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호주방산업체연합(Team Australia)으로 묶여 AMSO의 지원을 받는다. 총 68개의 호주 방산업체가 Team Australia에 가입되어 있고, 이들이 개발한 109개의 무기 체계가 범정부 기구인 AMSO의 지원 및 통제 하에 수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호주의 방위산업은 시장 규모에 비해 자생력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AMSO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영

속성을 가진 범정부적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원 및 수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위상을 상징하는 그라울러

다른 그 어떤 기종보다 오늘날 호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체가 바로 EA-18G 그라울러(Growler)다. 슈퍼호넷과 마찬가지로 F-35A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F-35A 도입 사업이 본래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그라울러는 호주에 도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호주는 24대의 F/A-18F 중 12대를 배선 작업을 통해 추후 그라울러로 개조할 예정이었지만 F-35A의 인도가 늦어지면서 24대의 슈퍼호넷과는 별개로 2013년 그라울러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도입 동기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가격(12대 기준 15억 달러, 대당 1,400억 원)을 떠나 절대 수출되지 않는 품목으로 간주되던 그라울러가 호주에 판매된 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라고 할



WORLD TODAY



호주 공군의 EA-18G 그라울러 1호기. 그라울러는 앞으로도 호주를 제외하고 그 어떤 국가에도 판매되지 않을 기체가 될 가능성 이 매우 크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호주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단계에 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구형 기체로 현재는 전량 퇴역한 EA-6B 프리울러(Prowler)조차 단 한 대도 해외 판매가 된 전례가 없다. 그라울러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들은 1급 비밀에 속하는 첨단 전자전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현재 EA-18G에 탑재된 ECM 및 전자전 장비들에는 미국의 현대 전자전 기술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호주는 그라울러를 도입한 최초의 해외 국가인 동시에 앞으로도 그라울러를 도입한 유일한 해외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호주 공군용 그라울러는 2015년 7월 미국 보잉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룰아웃 행사를 갖고 호주 공군에 인도된 바 있다. 현재까지 2대의 호주 공군용 그라울러가 인도됐지만 이들은 호주로 바로 날아가지 않고 미 해군의 차이나 레이크 NAWC(Naval Air Weapons Station)에서 각종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 공군의 그라울러는 2017년 초에 운용 예정 부대인 엠벌리(Amberley) 기지의 제6전투비행대대에 정식으로 인수될 예정이며, 초도운용능력 확보는 2018년 중반으로 계획되어 있다.

아태 지역 대표 호주의 '오크라작전'

호주는 제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

A-18A/B 14대가 유일했다. 호주를 제외하면 아태 지역에서 실전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국경에서 충돌하는 지상군에 공중지원 몇 번 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태 지역 자체가 워낙 촘촘한 힘의 군형으로 짜여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역내 항공력의 실전 기록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향후 미국·동남아시아·중국·일본·러시아 간 잠재적인 분쟁 시나리오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의 ISIL 공습작전 참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크라작전에서 호주 공군은 다른 참전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군과의 작전·정보공조 하에 독립된 공습작전을 펼치고 있다. 호주는 2014년 8월

C-17A와 C-130J에 의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및 물자 수송을 시작으로 9월 말 6대의 F/A-18F 슈퍼호넷 등 주요 공중전력과 400명의 병력을 UAE의 알 민하드 공군기지에 전개시켜 본격적인 공습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10월 8일 F/A-18F 1대가 ISIL 지휘통제시설에 폭탄을 투하해 타격임무의 포문을 열었다. 호주 공군 슈퍼호넷의 역사적인 실전 데뷔였다. 아울러 E-7A는 공중조기경보통제를, KC-30A는 타격임무를 수행하는 슈퍼호넷에 대한 공중급유 지원을 실시하며 역시 실전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참전 기체들은 일정 기간 작전에 참가한 뒤 호주



E-7A 위저터일은 2009년부터 도입되어 2012년 초도운용 능력을 확보했으며 초도운용 능력을 확보한지 불과 2년 만에 이라크·시리아에서 소중한 실전을 경험했다. 오크라작전 기간 중이던 2015년 11월 E-7A는 전 세계 E-737 기종의 최장 작전 임무 제공 시간인 17시간 10분을 기록하기도 했다.

본토에 머무는 부대들과 교대 배치되며 오늘날 까지도 이라크·시리아 전역에서의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크라작전은 단순히 슈퍼호넷과 E-7A, KC-30A의 실전 데뷔무대였다는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호주가 앞으로 영국을 대신할, 혹은 영국에 필적할 만큼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할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호주는 비단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영국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속속 도입 중에 있는 최첨단 항공기들을 동원해 향후 각종 분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 행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공군이 2015년 11월까지 총 8대를 도입한 C-17A. C-17A는 전차와 같은 전략물자를 대량을 건너 수송할 수 있는 전략수송 능력과 야지 이착륙 등 전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수송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수송능력을 동시에 갖춘 세계 유일의 수송기로서 2015년 279대로 생산이 종료된 바 있다. 호주는 본래 6대의 C-17A 도입으로 전력화를 마무리했으나 보잉이 C-17A 생산라인 연장을 위해 구매국 없이 추가 생산한 10대가 시장에 나오자 그중 2대를 추가로 구매·인수한 것이다.

AUSTRALIA



Travel tip

F 주요 여행지

오페라하우스 시드니에 위치한 오페라하우스는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요트의 끌과 조개껍데기를 모티브로 한 아름답고 우아한 외관이 특징이다. 건축 형태와 구조적 설계의 모든 면에서 창의력이 돋보여 '죽기 전에一定要' 할 세계 건축물로 꼽힐 만큼 유명하다. 내부는 복합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약 2,700석을 보유한 콘서트홀과 약 1,500석의 오페라 시어터 외에 수백석 규모의 드라마 시어터, 브로드 워크 스튜디오, 소극장인 플레이하우스 등이 있다. 거의 매일 공연이 열릴 정도로 수많은 공연 일정이 잡혀 있으며 공연 횟수는 연간 약 3,000회. 공연을 하지 않는 낮에는 유료 가이드 투어를 실시한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2,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산호초 지대다. 400종의 산호초와 1,500종의 어류, 4,000종의 연체동물이 살고 있으며 듀공(Dugong, 바다소)과 열종 위기에 처한 거대한 바다거북의 서식지이다. 스노클링, 반잠수함 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스쿠버ダイ빙, 헬리콥터 투어 등의 레저도 즐길 수 있다.



X 대표 음식

미트파이 호주의 국민 음식으로 통하는 미트파이는 닭고기나 쇠고기 등의 고기를 갈아 버섯, 카레, 김자, 야채 등을 파이 껍질 속에 넣은 것으로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다. 호주인에게 미트파이는 미국인의 핫도그 같은 든든한 간식거리다.



레밍턴 스펀지케이크에 초콜릿 옷을 입힌 후 코코넛 가루를 뿐인 케이크로, 촉촉한 스펀지케이크의 식감과 달콤한 초콜릿, 거칠게 씹히는 코코넛 가루가 조화로운 호주의 대표 디저트다.





잠들어 있는

창의성을
깨워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경쟁력인 시대. 요즘은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창의'를 빼놓고는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하는 것을 넘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창의성을 특별한 1%에게 주어진 타고난 재능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천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잠재력을 깨워 창의성에 날개를 다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남과 다른 시각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의성의 시작은 호기심을 품는 데서 출발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왜?'라는 질문을 머리에 새기고, '만일?'이라는 물음표를 습관화하며, '어떻게?' 바꿀지 꾸준히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묻고, 뒤집어 생각하고, 어떻게 현실화할지 고민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간과한 부분을 찾아 자신만의 정답을 찾는 것이 창의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잊지 마세요.

굳은 머리에선 기발한 생각이 나올 수 없고, 닫힌 마음에선 세상을 바꿀 영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상 속 사소한 차이를 발견하는 사람, 답을 잘 찾는 사람이 아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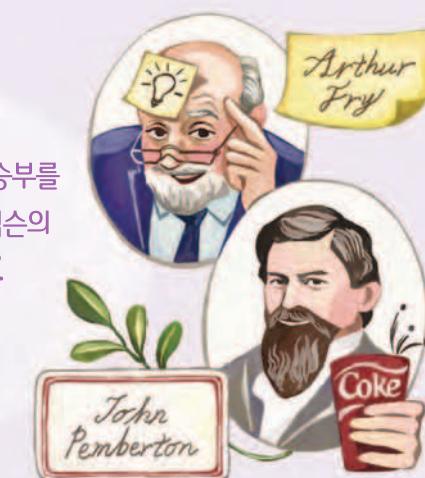
메모지계의 혁명으로 불리는 포스트잇은 스페너 실버라는 한 연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실버는 잘 붙고 끈적이지 않지만, 쉽게 떨어지는 특이한 접착제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접착력이 좋지 않은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결국 개발은 실패로 묻히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4년 뒤, 같은 회사의 아서 프라이가 실버의 접착제에 관심을 갖고, 잘 떨어지는 접착제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해 붙였다 떼기 편한 메모지인 포스트잇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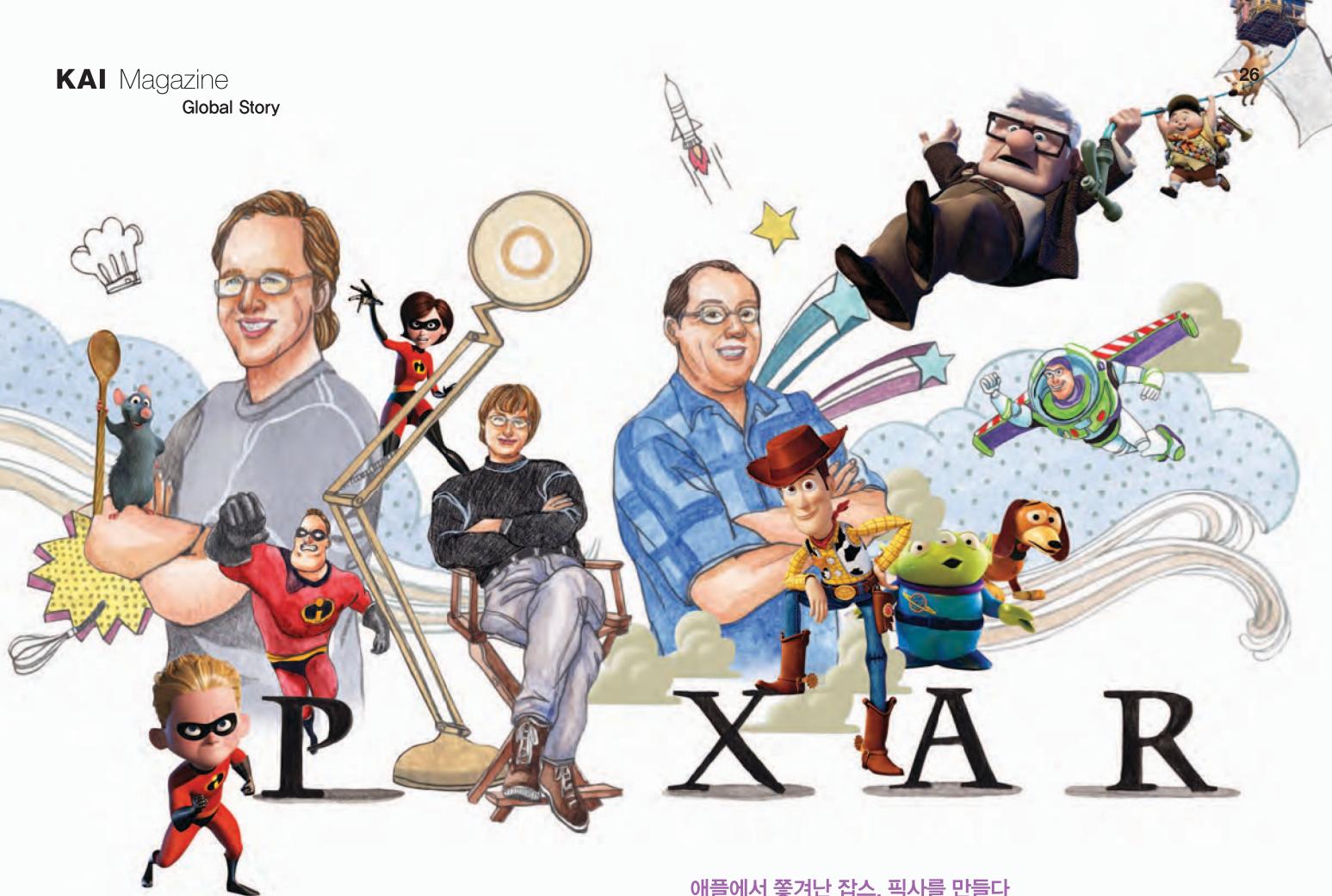


일회용 반창고는 1920년, 미국의 얼 딕슨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요리를 하다 칼에 손을 베는 등 상처를 자주 입었는데, 그때마다 딕슨은 아내의 상처를 치료해주었죠. 그러던 중 딕슨은 자신이 없을 때 아내가 혼자서도 치료할 방법을 고민했고, 반창고에 거즈를 붙여 일회용 밴드를 발명하게 됐답니다.



잘 붙어서 좋은 접착제가 아닌 잘 떨어져서 좋은 접착제로 승부를 건 아서 프赖의 '역발상', 작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얼 딕슨의 '관찰력', 모순된 것을 조합하고 버무린 존 펠버튼의 '호기심'. 창의성을 만드는 열쇠는 '예외'에 숨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흥행 불패, ‘픽사’의 성공 비결은?

20대부터 40대까지를 묶어주는 공통분모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픽사(PIXAR)’의 애니메이션을 꼽겠다. 1편부터 3편까지 제작된 〈토이 스토리, 1995~2010〉, 전 세계적으로 ‘니모’ 열풍을 낳은 〈니모를 찾아서, 2003〉뿐만 아니라 〈라따뚜이, 2007〉, 〈월-E, 2008〉, 〈업, 2009〉 거기다 〈니모를 찾아서〉의 속편으로 최근 개봉한 〈도리를 찾아서, 2016〉까지. 이 세대라면 픽사 영화 한 편쯤은 봤을 법하기 때문이다. 다섯 살배기 아이부터 40대 아저씨, 아줌마까지 웃고 울리는 픽사 애니메이션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1995년 〈토이 스토리〉를 시작으로 발표하는 작품마다 단 한 편도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전 세계인을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이끄는 픽사의 성공 비결을 살펴보자.

글 강양구 일러스트 신미래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 픽사를 만들다

스티브 잡스 하면 모두가 ‘애플’이나 ‘아이폰’을 떠올린다. 하지만 픽사야말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꿈꿨던 가장 잡스다운 창조물이다. 잡스는 1986년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파트를 1,000만 달러에 사들이고 컴퓨터의 화소를 의미하는 ‘Pixel’과 예술 ‘Art’의 합성어인 픽시를 시작한다.

1985년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던 잡스는 애초 픽사를 애플에 버금 가는 컴퓨터 회사로 키울 생각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도 정부 기관이나 의료 기관에 컴퓨터 그래픽 전문 하드웨어를 제조·판매하는 일이었다. 픽사가 만든 최초의 애니메이션 〈룩소 주니어〉(1986년)도 이 그래픽 전용 컴퓨터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보용으로 만든 <룩소 주니어>가 이듬해(1987년)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자, 픽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 방향을 돌린다. 그러다 1990년대 초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직접 나선 픽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3,000만 달러(한화 약 329억 원)를 들여 장편 애니메이션 한 편을 내놓는다. 바로 <토이 이 스토리>(1995년)다.

〈토이 스토리〉는 미국에서만 1억 9,000만 달러(약 2,085억 원), 전 세계적으로 3억 6,000만 달러(약 3,950억 원)를 벌면서 픽사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다. 픽사는 〈벽스 라이프〉(1998년), 〈토이 스토리 2〉(1999년), 〈몬스터 주식회사〉(2001년), 〈니모를 찾아서〉(2003년), 〈인크레더블〉(2004년) 등을 연달아 선보이며 흥행 불패 신화를 쓰는다.

픽사의 성공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잡스는 1997년 파산 위기에 직면한 애플의 임시 대표로 복귀하고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을 발표하며 오늘날의 애플 신화를 만든다. 지금 픽사의 본사에는 ‘스티브 잡스 빌딩’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다. 이 건물은 잡스가 픽사에 있을 때 직접 디자인에 관여한 것이다.

사, 디즈니를 바꾸다

사는 2006년에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맞는다.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했던 디즈니가 피사를 74억 달러(약 8조 1,200억 원)라는 엄청난 금액에
수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피사의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런데 반전이
었으니, 피사의 에드워 캣멀 사장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장을 겸임하게
것이다. 사실상 피사가 '디즈니' 살리기'에 트인된 셈이다.

이온 킹)(1994년) 이후에 무려 12년 동안 아무런 흥행작이 없었던 디즈니
픽사를 구원투수로 영입한 것이다. 그렇게 픽사와 합병하고 나서 디즈니
(라파젤)(2010년)로 환영하게 재기에 성공한다.

렇다면 ‘미다스의 손’ 뺨치는 픽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직원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게 내버려 두는 것’ 즉, 직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모두가 조직의 주인이 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픽사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렇다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피사 특유의
드백 문화다. 피사 직원은 매일 오전 의식처럼 모여서 전날의 업무 진척
상을 발표하고 상사와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커피와 과자를 즐기
서, 때로는 소파에 반쯤 누워서 하는 회의지만 오가는 피드백은 송곳 같
물론 이 허이에서는 친근에 따를 계급작 따위는 없다.

첫하면 직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이런 회의를 매일 오전 진행함으로서, 피사는 피드백 문화를 만들었다. 이 회의에서는 인턴 직원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 성공의 주역인 존 라세터 감독도 업무 진척 상황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모두가 평등한 피드백이 매일 계속되니 개인의 창조성이 집단의 창조성으로 변하는 것이다.

패자가 성공하는 법

스가 디자인에 참여한 픽사 본사는 유리로 덮은 세로 150m 길이의 기다 건물이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화장실, 회의실, 카페, 식당이 모두 거대한 양 로비에 몰려 있다. 때문에 픽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하루에 한 번 어디서든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이는 잡스가 조직의 일상적인 '소'을 위해서 가제로 만들어 놓은 전략이다.

런 건물에서 일하면 예술 담당 직원, 기술 담당 직원이 의도치 않게 우연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때로는 그러다 눈이 맞아서 연애 한다. 자연스럽게 조직 내의 소통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과 예술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학사의 창업 철학이 녹아 있는 대이다.

사는 '픽사 대학'이라는 사내 교양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로 다른 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직원이 이 픽사 대학에서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픽사의 흥행 불파 신화에는 이렇게 좌우 또 위아위의 벽을 허물며 창조성을 복돋는 조직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지막으로 하나 더. 애플에서 쫓겨난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물론이고 픽사는 유달리 패배자가 많았다. 〈토이 스토리〉 신화의 주인공인 존 라세터는 회 초년병 시절 디즈니에 입사했다가 해고당한 전력이 있었다. 〈인크레더블〉, 〈라따뚜이〉를 만든 브래드 버드 감독도 디즈니와 워너브러더스에서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다.

런 실패자가 피사 울타리 안에서 대성공을 거뒀다. 그 비법은 앞에서 살펴 대로 구성원을 신뢰하며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피사의 기업문화에 있다.



기체생산팀3직 조영진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쌓은 판금 기술의 금자탑

글 문석, 구보람 과장
사진 안종근

프로필 46호 달인

이름	조영진
부서	기체생산팀3직
직급	전문
입사	1994년
경력	판금 업무 23년 (CNC, 성형 장비)
주업무	Hand CNC Rout를 통한 판금 업무



고도의 집중력과 세심함이 필수

항공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은 금형, 정형, 열처리 등 10여 개의 다양한 판금 공정을 거친다. 판금은 항공기 제조 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공정으로, 이 과정이 완벽히 준비되어야만 다음 제조를 시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항공기 생산의 출발선'인 셈이다. 이런 판금 업무를 23년간 갈고닦아 46호 달인으로 선정된 이가 있으니, 기체생산팀 3직 조영진 전문이다.

"94년 입사 후 지금까지 다양한 판금 공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Hand CNC Rout를 통한 절삭 가공 업무를 맡고 있지요. 대개의 제조업이 장비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데 반해, 판금은 수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손으로 금속을 다뤄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기에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죠."

3교대 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데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강도 높은 업무지만 이런 공정을 거친 부품이 KAI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기에 성취감과 보람도 크다. 특히 주말까지 반납했던 T-50 작업은 조 전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자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다.

"밤샘 작업을 마치고 아침에 퇴근해 동료들과 함께 먹었던 국밥과 소주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날의 힘든 작업 끝에 T-50이 시험비행에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덕분에 일에 대한 자부심과 동료애도 깊어졌죠." 돌아켜 보면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동료애가 전부였단다. 혼자 내딛는 천 걸음보다 여럿이 손잡고 가는 한 걸�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실감했다는 그는 "KFX, LCH/LAH와 같은 신규 사업을 통해 후배들도 일과 동료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탄탄한 기초 지식이 나를 키운 팔 할

같은 팀 선후배들은 조 전문을 공부벌레라 부른다.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모자란 게 현실이지만 특유의 프로 균성으로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 할수록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정한 전문가라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 힘은 공부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문제가 생기면 해답을 얻기 전에는 직성이 풀리지 않거든요. 이런 성격도 공부를 시작하는데 한몫을 한 거 같습니다."

기계조립기능사 2급, 프레스금형기능사 2급 그리고 어렵다고 정평이 난 기계가공기능장까지. 바쁜 일과를 끼어 노력한 시간은 자격증 취득으로 결실을 맺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전에서

의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답이 없다는 조 전문은 후배들에게도 틈틈이 공부하라고 조언한다. 그저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스스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의문을 품어 답을 찾을 때 판금 업무의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궁금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공부하면 업무 시야도 넓어지고 일하는 재미도 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동료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지요. 사실 저는 판금 업무를 하는 기체생산팀원 모두가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항공기정비사 자격증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조영진 전문. 그가 말하는 달인의 노하우는 단순하다. 어떤 자리에서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것. 현재에 머물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더 나은 방향을 탐구할 것. 어찌 보면 평범한 진리이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오늘의 그를 달인으로 만든 비결이자 원동력이다.

칭찬합니다



판금 분야의 전 공정을 완벽하게 섭렵한 진정한 프로입니다. 새로운 장비나 기술이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 팀의 학구파입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와 길잡이가 되고 있는 상사이자 친한 형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후배들 잘챙겨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46호

조영진 전문
기체생산팀3직

FLY NEWS



솔라임펄스2, 석유 한 방울 없이 505일간 지구 한 바퀴 돌아

세계 최초 태양에너지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돈 비행기 솔라임펄스2가 약 1년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해 3월 9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솔라임펄스2는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4개 대륙과 태평양,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총 4만 2,000km를 비행했다. 조종은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이자 프로젝트 책임자인 솔라임펄스재단의 베르트랑 피카르(58) 회장과 최고경영자 앙드레 보르슈베르그(63)가 번갈아가며 맡았다. 마지막 여정을 조종한 피카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도전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제로(ZERO) 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페이스북, 인터넷 드론 ‘아퀼라’ 첫 시험비행 성공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인터넷 신호를 전달하는 무인항공기(드론)가 시험비행을 마쳤다. 페이스북은 7월 21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드론 ‘아퀼라’의 첫 실물 시험비행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라틴어로 독수리를 뜻하는 아퀼라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지역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인터넷 연결 신호를 전달하도록 설계된 항공기다. 아퀼라는 보잉737 여객기와 비슷한 크기이며 날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는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m 상공에서 100km의 직경 거리를 원을 그리며 비행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회사 블로그에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인구가 16억 명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퀼라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380의 굴욕, 날개 달린 호텔서 골칫거리로

‘하늘을 나는 호텔’로 불렸던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 A380이 항공사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비행기가 너무 커 비즈니스 좌석을 모두 채우는 게 쉽지 않은데다 경쟁력 있는 중형 여객기도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초대형 여객기인 A380은 지난달 말 기준 세계시장에서 319대가 주문됐고 193대가 인도됐다. 보잉의 B747을 능가하는 초대형 여객기로 주목받으며 2007년 첫 인도 당시 향후 20년간 1,200대 수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더구나 에어버스는 2018년부터 A380 인도 목표를 연 12대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7대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사고 시 대체기로 B747을 투입해도 최대 500명이나 되는 A380 승객을 모두 태울 수는 없다”며 “중형기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어 A380의 시대는 다시 안 올 것 같다”고 말했다.



보잉 747 점보기 반세기 만에 은퇴

커다란 덩치 때문에 ‘점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보잉 747 제트기가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7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잉은 747 기종의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공시했다. 747 점보제트기는 미국 대통령이나 다른 국가의 정상들이 애용한 기종으로, 1970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 항공사에 1,500대가 넘게 인도됐다. 그러나 747은 항공 여객 시장의 변화를 발 빠르게 따라잡기엔 덩치가 너무 컸다. 저가 항공과 단거리 노선의 인기는 엔진이 네 개인 점보기 747에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또 항공사들이 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제히 중형기로 갈아타는 추세도 악재로 작용했다. 수요 변화와 다양한 노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형기로 항공기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여객기는 몰락의 수순을 밟아갈 전망이다.

중국, 세계 최대 수륙양용 비행기 AG600 완성

중국이 세계 최대 수륙양용 종합 구조기를 완성하며 항공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뉴스 사이트 ‘화구망’은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중항공공)가 광저우 주하이시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세계 최대 수륙양용 비행기인 AG600의 조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AG600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가동한 프로젝트로 2012년 기본 설계 과정 등을 거쳐 완성됐으며 올해 말 초도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 항공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53.5t에 이르며 기체와 날개 길이가 각 36.9m, 38.8m로 이는 여객기인 보잉 737과 맞먹는 크기다.

기체가 큰 만큼 항공기 수송 능력도 뛰어난다. 20초 안에 12t의 물을 길어 옮길 수 있고 한 번에 50명의 환자를 수송할 수 있다. 또 바다에서도 이륙이 가능해 화재 진압이나 해상 구조를 비롯한 긴급 구조 업무가 가능하다. 중국은 독자 개발한 전략 수송기 원(運)-20(Y-20)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AG600까지 만들어, 항공기 제작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됐다.



중국, 항모 함재기 전-15 추락사고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함재기 전(殲·J)-15가 지난 4월 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고 홍콩 영자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는 중국중앙인민라디오방송(CNR)을 인용해 조종사 장차오(張超·29) 소교(少校·소령)가 전-15에 탑승해 지난 4월 27일 모 기지에서 항공모함 착륙 모의훈련을 하던 중 플라이 바이 와이어(Fly-By-Wire) 디지털 비행제어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났으며, 조종사는 탈출했지만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관영 매체가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의 주력 함재기인 전-15의 추락사고를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윙(黃東) 마카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이번 사고는 전-15가 함재기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1980년대 수호이(Su)-27 전투기의 시험비행 사고처럼 전-15의 추락 이유가 비행 제어장치 고장이나 생산 품질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장 대안이 없어서 중국군이 전-15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로 전-15의 향후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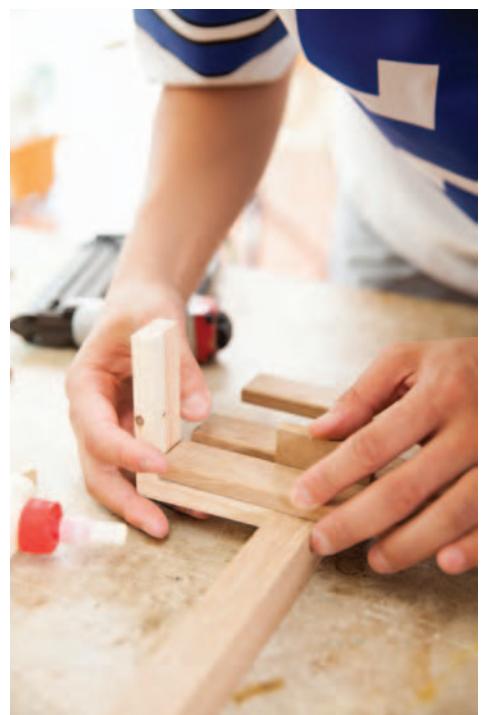
항전SW팀 이준태 선임 가족의
목공 DIY 체험

오늘은
우리 가족이
일일 목수!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목재를
자르고 나사못을 박을 때도, 자투리
재료로 도미노를 만들고 젠가 놀이를 할
때도, 남들이 볼 땐 별 거 아닌 일이
이준태 선임 가족에게는 재미난 웃음
소재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어딜 가나 추억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이준태 선임 가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진주에 위치한 '풀꽃과
나무' 공방에서 이들의 목공 체험이
시작됐다.

기획 배화윤 차장 글 문석 사진 안종근



아내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 불볕더위에 목공 체험이라니. 여름철 단골 아이템인 워터파크도, 삼림욕도 마디하고 공방을 찾은 가족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품고 가족을 만났는데, 이게 웬걸? 아내 백진영 씨는 임신 5개월, 딸 지윤이는 겨우 5살, 각종 공구를 들고 목공 DIY를 하기엔 어째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을 여행을 위한 이른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이 워낙 캠핑을 좋아하는데 올여름은 너무 더워 제대로 즐기지 못했거든요. 가을이 되면 아내의 몸이 더 무거워질 텐데 조금이라도 편히 캠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했습니다.”

이준태 선임의 신청 사유를 오늘 처음 듣는다는 아내 백진영 씨의 얼굴에 금세 미소가 번진다. 임신 전 목공 DIY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용케 기억하고 이벤트를 준비한 남편이 고마운 눈치다.

“세상에 하나뿐인 캠핑 장비로 가을 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은 이미 캠핑장에 와 있는 듯해요. 오늘 적극적으로 체험에 참여할 순 없지만 남편이 만들 의자와 테이블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진영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막 잠에서 깬 지윤이가 낮선 공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울음을 터트린다. 잠시 엄마가 품에 안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니, 언제 울었느냐는 듯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배꼽인사를 선보인다. 이쯤 되니 오늘의 역할 분담은 정해진 듯하다. 이준태 선임은 실무 작업자, 아내는 관리 감독, 지윤이는 재롱 담당이다.

가족을 위해 목수가 된 아빠

오늘 이준태 선임이 만들 가구는 캠핑장에서 사용할 의자 두 개와 테이블이다. 체험자로 선정된 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한참 고심했다는 그는 일반 의자보다는 낮고 등받이가 튼튼한, 조금은 평범치 않은 디자인을 택했다.

“작업량도 많은데다 초급자가 하기엔 난이도가 높은 목가구를 택했다”는 공방 강사의 우려에도 전혀 주눅 드는 기색이 없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자 이준태 선임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먼저 나무를 재단하고 가공에 들어간다. 목재와 목재가 어긋나지 않도록 우드본드로 잘 고정시킨 뒤 택커(입정 또는 금속 판을 박는 공구)를 이용해 가고

정을 한다. 이어 전동드릴로 나무를 뚫고 가지런히 나사못을 고정하니 어느새 등받이가 모양을 갖춘다. 엄청난 집 중력을 발휘하는 이준태 선임을 향해 시범을 보이던 강사가 한마디 건넨다.

“대개 초보자들은 책장이나 선반 만들기에 도전하는데, 어려운 작업도 순조롭게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이 분야에 소질이 있어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목공 취미를 가져보시는 건 어때요?”

장비 소리만 요란했던 체험장에 한바탕 웃음꽃이 핀다. 어른들이 웃으니 지윤이도 덩달아 신이 났는지 깔깔 따라 웃으며 망치를 집어 듈다. 다섯 살 지윤이가 들기엔 꽤 무거워 보이는데 아무지게 망치를 쥐고 못을 박는 시늉을 한다. 잘한다는 엄마의 칭찬 한마디에 이번엔 아빠 옆에 자리를 잡고 조수 역할을 맡는다.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끄듯 못을 박은 자리에 쌀인 나무 가루를 후후 부는데, 부녀는 그게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시종일관 하하호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진영 씨도 이에 질세라 지윤이 옆에 서 가루 불기에 동참한다. 나무와 나무가 만나 형태를 이루듯 가족 간의 정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오후다.

함께여서 행복한 순간들

이준태 선임 가족이 캠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5년 전. 지윤이가 막 100일 됐을 때부터다. 우유도 안 떤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한 달에 두세 번이나 캠핑장을 찾았다니, 이 가족 영락없는 캠핑 마니아다. 그리고 보니 지윤이도 어엿한 5년차 캠퍼인 셈이다.

“지윤이 임신했을 때 아내와 상의한 게 아이와 함께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갖자는 거였어요. 지윤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요. 그래서 시작한 게 캠핑인데 우리 가족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산으로 바다로 캠핑을 떠나 지윤이 걸음마 떼는 것도 촬영하고 공놀이도 하며 추억을 많이 쌓고 있답니다.”

사진을 전공한 백진영 씨와 사진이 취미인 이준태 선임은 연애 시절 카메라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여행을 참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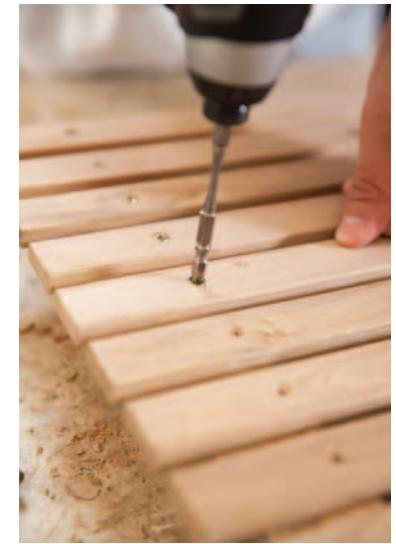


“대개 초보자들은 책장이나 선반 만들기에 도전하는데, 어려운 작업도 순조롭게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이 분야에 소질이 있어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목공 취미를 가져보시는 건 어때요?”



도 다녔단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고, 결혼 후 아이를 낳아도 아이 위주가 아닌 두 사람의 인생을 살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 같지 않았다. 여행 횟수도 촬영을 나가는 일도 점점 줄었다. 그렇게 같이 하는 취미가 사라져갈 무렵, 결단력 있는 이준태 선임이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할 수 있는 캠핑을 가지고 제안했다. 그렇게 가족은 여행을 시작했고, 내년이면 네 명의 캠퍼가 산과 바다로 캠핑을 떠날 예정이다.

“야외에서 남편이 해주는 음식 먹는 재미도 있고, 저녁에 아이 재우고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도 즐거워요. 남편과 저는 정반대의 성격인데 밖에서 대화를 많이 나눠서인지 싸움도 거의 안 해요, 물론 평소에도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죠.



“남이 만든 물건을
사서 쓰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고
나니 묘한 쾌감이
있네요. 제가
생각한 디자인이
실제로 구현되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가족 모두의 정성이
담긴 소품이라 더
소중합니다.”

뭐든 셋이 함께 경험하고 추억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번 체험도 신청한 거 같아요.”
나무를 자르고 뜯을 때 박는 남편을 지켜보며 자랑을 끊임없이 옮는 백진영 씨. 연애 7년, 결혼 6년 합이 13년인데 남편 사랑이 여전한 걸 보면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맞는가보다.

손수 짠 장비 들고 가을 여행 갈래요~

목재를 자르고 이어 붙이는 네 시간의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참나무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완성됐다.
“남이 만든 물건을 사서 쓰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고 나니 묘한 쾌감이 있네요. 제가 생각한 디자인이 실제로 구현되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가족 모두의 정성이 담긴 소품이라 더 소중합니다.”
백진영 씨도 생애 처음으로 만든 가구를 보니 뿌듯한 모양이다. 의자에 앉아 보고 테이블을 접으며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총평을 남긴다.
“마음에 쑥 듭니다. 강사님께서 초보자가 하기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셔서 내심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못쓰게 되면 남편이 많이 실망할 거 같아서요. 완성품을 보고 나니 괜한 걱정이었네요. 오후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한 여보, 고생 많았어요!”
옷에 묻은 목재 가루를 털어낸 가족이 직접만든 의자와 테이블을 세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캠핑 트레일러 앞에 손수 만든 가구를 펼치고 자리를 잡으니, 그럴싸한 캠핑 사이트에 나들이 온 기분이다. 고생한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는 백진영 씨와 아내의 머리를 쑥쑥 쓰다듬으며 미소로 화답하는 이준태 선임. 그리고 장시간 지루했을 법



목공 DIY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똑같은 도면과 똑같은 나무를 사용해도 나뭇결과 손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목공 DIY의 가장 큰 매력. 가구 만들기에 도전하고 싶다면 주변 목공방을 찾아보자. 강사의 지도 아래 치수 재기부터, 나사 체결하기, 페인팅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공학이나 디자인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공방에 따라 목재 재단, 도면 그리기 같은 단계는 생략하고 전문가가 재단한 재료를 조립하고 마감하는 작업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 풀꽃과 나무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천수로 182 전화 070-7806-3887



도 한데 특정 한 번 안 부린 기특한 지윤이까지. 가족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고 했던가. 때로는 울타리처럼 든든하고 때로는 그늘처럼 편안한 휴식이 되어 주는 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요즘에는 행복이 별건가 싶어요. 이렇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이죠. 오늘 만든 의자를 들고 사진까지 찍으니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목공 DIY 경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통해 가족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싶다는 이준태 선임. 한창 많은 것을 보고 느낄 때 인 땀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바람 불면 바람 따라, 단풍이 들면 단풍길 따라 여행을 떠날 거란다. 그렇게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나면 훌쩍 자란 지윤이의 키만큼이나 가족 사랑도 부쩍 커져 있겠지. 내년이면 둘째 아이를 안고 전국을 누빌 이 가족의 캠핑 여정이 궁금해진다.



201항공대대 기지사무소
수리온,
힘찬 비상을 향해
시동을 걸다



지난 6월 말, 전국 육군에 순차적으로 배치 중인 수리온이 야전대대로는 두 번째로 201항공대대에 납품됐다. KAI는 수리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2년간의 품질보증 기간을 갖고, 기지사무소를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폭염 속에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201항공대대 기지사무소의 지영호 전임기술원을 만났다.

기획 배화운 차장 글 문석 사진 안종근

내일을 향한 첫 도약

“6월 1일 개소 후 지난 두 달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 장비와 기타 공구 등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사전 교육, 행정 업무, 사무소 관리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또 군과 업무 핫라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대화가 오가는 과정입니다.”

총 인원이 세 명이지만 아직까지는 혼자뿐이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다는 지영호 전임. 폭염 속 냉방 시설도 완비되지 않아 고충이 컷을 범도 한데 웬일인지 피곤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다. 첫 단추를 끼우는 시기인데다 전방 부대의 특성상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201항공대대 기지사무소는 수리온의 자재지원, 고장탐구, 종합군수지원(ILS), 설계변경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항공기의 조기 안정과 정비사의 기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부대 내 정비사들에게 분야별 엔지니어링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중이다.

“수리온이 납품되는 부대의 정비사들은 육군항공 학교에서 한 달, 길게는 네 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후 실질적인 정비 기량을 위해 수차례의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항공기가 들어오면 지원 장비 및 공구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법이 익숙지 않으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리온과 기지사무소, 정



현재는 항공기의 조기
안정과 정비사의 기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부대 내 정비사들에게
분야별 엔지니어링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중이다.

비사들이 합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바꿀 것도 고칠 것도 많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커
힘든 줄 모르고 일한다는 지영호 전임이다.

신뢰와 소통의 파트너십 유지할 것

201항공대대에 납품한 수리온은 각종 전술 훈련 및 인원공수, 공중사격, 지휘통제, 공중지휘소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재해·재난 구조 등의 대민지원까지도 맡는다. 위험 수위가 높은 임무인 만큼 수리온의 관리는 완벽해야 한다.

수리온에 장착된 첨단 장비들은 포천과 같은 전방의 산악 지형을 자유자재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 장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기지사무소의 역할이 막중하다.

“최초의 국산 헬기이다 보니 다소 결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작은 회사가 했지만 운용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회사에 전달해서 설계변경 등의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죠. 무결점 항공기로 거듭나기 위한 꾸준



“하나하나 갖춰가며
발전하는
201항공대대
기지사무소의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한 업그레이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영호 전임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파트너와의 소통이다. 파트너와의 최접점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KAI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처음 한 달은 부담과 걱정이 만만치 않았다. 그때마다 지영호 전임이 떠올리는 것은 ‘소통을 위한 신뢰’다. 원활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 회사와 회사 사이에 믿음이 형성되어야 가능하기에 차근차근 신뢰를 쌓으며 파트너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둘 모이면 신뢰가 두터워질 테고 작업 성과도 따라오겠죠. 대대장께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데, 저는 신뢰로 보답하는 KAI의 거울이 되고 싶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향해

수리온의 현장사무소는 논산, 영천, 용인, 포천 이렇게 네 곳이다. 그중 포천은 본사와의 거리가 가

장 멀어 신속한 후속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몸의 병도 모를 때가 병이지, 알면 병이 아니라는 지영호 전임. 본사와 먼 거리는 그를 비롯한 회사 전체 고민거리이기에, 각 부서와 회전의 고객지원실에서도 이곳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있다.

“훈자 고군분투 중이만 상주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기에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계통별 전문가들이 직접 지원한다면 본사와의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현재는 수령검사 업무로 본사 직원들이 출장을 나와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 단계라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현재 본사에서 자재와 인력 지원을 해주고 있어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수리온의 시동을 처음 걸던 날 항공기의 열쇠가 뒤바뀌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얻는 항공기 지식도 적지 않다.

지영호 전임은 흑한기에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든든한 정비사들과 늘 기지사무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대대장 그리고 KAI의 운영기술팀이 있기에 201항공대대 기지사무소가 더 나은 항공기를 만드는 무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그가 인터뷰 말미에 즐거운 소식을 전했다. “저 내일 집에 갑니다. 3주 만에 가족들 만나러 가는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네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아이의 투정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는데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기지사무소에 오는 분들도 저랑 같은 상황일 텐데, 서로 의지하고 단합해 호령호제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갖춰가며 발전하는 201항공대대 기지사무소의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Mini Interview

**수리온과 함께
'8만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할 것**



201항공대대 서종원(중령) 대대장

육군15항공단 201항공대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80년 창설해 36년의 역사를 가진 대대입니다. 작전 지역이 넓고 위험한 임무 수행이 많은 부대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공중강습 등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올해 우리 부대는 육군항공 창설 아래 최초로 7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1990년 11월부터 25년에 걸쳐 달성한 기록으로, 완벽한 정비 및 관리가 수반된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임무 수행 내용이 많은 가운데 달성한 기록이라 그 의미가 큽니다.

KAI 기지사무소 개소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수령검사를 진행하며 즉각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여려모로 효율성이 높습니다. 빠른 지원이 가능하니 시간이 단축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상주함으로써 수리온 운용 및 항공 정비, 교육 등 모든 부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KAI 기지사무소와 효율적인 업무 파트너십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하는 점이 있다면?

현장 소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 토의를 진행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개소 초반이라 요구 사항이 많은 편인데, 지영호 전임 훈자 감당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있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빠른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KAI 기지사무소에 바라는 점 또는 기대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전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만큼 수리온이 잘 운용되도록 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상호보완하길 바랍니다. 또 대대는 수리온을 운용함으로써 작전 반응 시간 단축, 작전 반경 확대, 작전 실시 성공률 증대 등 대대의 전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후속 지원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리온으로 8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이어가는 게 대대의 목표입니다.

평소 KAI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KAI 기지사무소와 어떤 파트너가 되길 원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는 회사, 항공 불모지에 T-50부터 시작해 한국형 헬기를 개발한 항공산업의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지사무소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미연합사의 모토가 'We go Together'인데 대대와 기지사무소 역시 서로 돋고 성장하는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한복 연구가 박술녀
**전통을 잊고
아름다움을 짓는
한복장이**



하늘거리는 치맛자락, 팔을 따라
우아하게 늘어진 곡선, 은은하고
고운 색감. 이는 한복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펼쳐놓았을
때는 평면적이지만 입고 나면 선과
주름이 살아 우아한 입체감이
드러나는 우리의 전통 옷 한복.
32년간 외길을 걸으며 한복을
연구한 박술녀의 옷은 이런 한복의
미학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글 문석 사진 제공 박술녀한복

Park Sul-nyeo

우리 옷의 아름다움 꾸준히 알릴 것

박술녀는 한복을 만들 때 무엇보다 자연을 닮은 옷을 짓고자 한다. 그래서일까. 우아한 저고리의 배래선은 자연의 끄덕함을, 치마 주름은 강물의 흐름을 닮았다. 굳이 화려한 장신구를 더할 필요 없이 간결한 직선과 곡선의 조화만으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시골에서 유년을 보내서인지 지금도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어요. 푸른 소나무와 진달래꽃 가득한 뒷동산에서 뛰놀며 자연과 친구했죠. 집이 가난해 어머니께 바느질을 배웠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26살에 본격적으로 한복을 배우기 위해 이리자 선생님의 문하생으로 들어갔죠. 남보다 늦은 시작이라 잠을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두 배로 일했어요.” 문하생 중 단연 돋보였던 그녀는 5년 만에 한복집을 내며 독립한다. 박술녀 한복 특유의 최고급 천과 빈틈없는 바느질, 우아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은 세 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옷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고민도 커져만 갔다. 우리 옷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복 명품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박술녀는 국내외 귀빈이 참석하는 패션쇼를 주기적으로 열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아나운서, 스포츠 선수 등을 모델로 한 스타 마케팅으로 ‘한복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매일 별을 보고 출근해 별을 보고 퇴근하는 일과의 연속이었지만 양장에 밀린 한복의 미를 알리겠다는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고의 실력, 최고의 재료, 최고의 홍보는 빛을 발했고, 현재까지 ‘유명 인사들이 가장 입고 싶어 하는 한복’으로 꼽히며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패션쇼나 협찬을 할 때는 주목받기 위해 화려한 옷을 선보이지만 사실 제 취향은 ‘단순함’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가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거든요. 한국한공우주산업 역시 기분에 충실했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명절에는 옷장 속에 고이 모셔놓은 한복을 꺼내 입고 우리 옷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되새기면 어떨까. 우리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혜안과 전통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명절에는
옷장 속에 고이
모셔놓은 한복을 꺼내
입고 우리 옷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되새기면
어떨까. 우리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혜안과 전통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

생산관리팀 채종준 수석기술원

군에 간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 들팡 영상편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올여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도 “덥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다. 생산관리팀 채종준 수석은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들 윤성이를 생각하면 더워도 덥다고 말을 못한다며 아들을 비롯한 국군장병 걱정을 이어갔다. 이런 아들에게 사이다처럼 톡 쓰는 영상편지를 선사하기 위해 채종준 수석 자택에 촬영 스태프들이 방문했다.

글 김희정 사진 안중근
영상 성동해



촬영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집안은 북적북적했다. 영상편지에 출연하기 위해 딸 유리 씨 부부와 다섯 살 대영이가 일찌감치 집에 도착해 있었다. 오늘을 위해 김해에서 일부러 왔다고 했다.

“윤성이가 대영이를 정말 좋아해요. 영상편지에 나오는 조카를 보면 아마 힘이 솟을 거예요.”

9월호 ‘오늘을 부탁해’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제작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군에 간 아들이 생각나 바로 신청했다는 채종준 수석. 회사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유명 MC로 활약하는 그에게 ‘영상편지’는 아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벤트였다.

“항상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면회를 가 군에서 의

것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전우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덤덤하게 말했지만 군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이 어찌 마냥 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애써 밝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아들의 마음 씀씀이를 생각하니 오히려 웅클했다고.

채종준 수석도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눈 게 고등학교 때부터 예요. 그전까지는 어린 줄로만 알았죠.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며 아빠로서,

선배로서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카메라가 세팅되었고, ‘레

디 액션!’만 남긴 상태. 서로의 웃매무새를 만져주

며 카메라 앞에 앉은 부부가 차례로 안부 인사를 시작했다. ‘온 에어’ 사인이 들어오자 15년 경력의 MC답게 거침없는 입담이 쏟아져 나온다. 다양한 표정과 손짓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채종준 수석에게 촬영감독이 한번에 ‘오케이’를 외친다.

“사실 지금 굉장히 떨려요. 사회 볼 때도 떨지 않고 무대를 마음껏 즐기는데, 오늘은 카메라 앞에 서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잘하고 있죠?”

다음은 아내 신서희 씨 차례. 촬영 전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뜻밖에 자연스럽게 촬영을 이어간다. 여유 있는 손짓과 표정이 남편 못지않다.

“남편이 사회 보는 모습을 15년간 지켜봐서 그런지 할만 하네요. (웃음)”

안부 인사를 끝낸 부부는 지난밤 천천히 써내려갔던 편지를 한 장씩 펼쳐 보였다.

가족 모두 윤성을 사랑한다!

영상편지는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다. GOP 철책근무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더위를 견뎌냈던 두 사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편지를 읽을 시간. 정성껏 써내려간 편지를 들고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다. 조금 전 밝은 표정으로 안부 인사를 건넬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흐른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꾹꾹 눌러담은 애틋함이 느껴진다. “이 동영상을 윤성이와 전우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성이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동료 장병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해요.”

채종준 수석이 한 페이지 빼곡하게 적은 편지를 다 읽은 후 엄마의 편지가 이어졌다. 꼬깃꼬깃한 손 편지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 자랑스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다음은 누나 채유리 씨와 매형 강철호 씨의 안부 인사 차례. 8살 차이 나는 동생에게 늘 엄격하게 대했는데, 어느덧 늠름한 군인이 되었다는 게 실

감이 나질 않는 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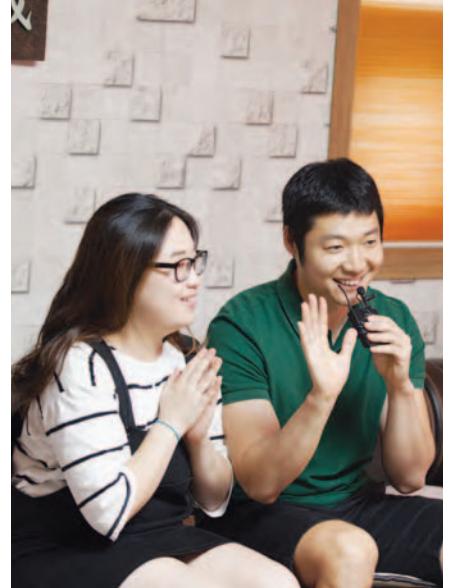
매형 강철호 씨는 “군대에서 아프면 굉장히 서럽거든요. 윤성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윤성 씨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대영이의 무대가 펼쳐졌다. 군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올 때면 엄마, 아빠 안부보다 조카 대영이를 먼저 물어볼 정도로 윤성 씨의 조카 사랑이 대단하다. 카메라 앞에선 대영이가 과연 삼촌의 기대에 부응할지 모든 시선이 대영이의 입으로 모였다. “곰 세 마리가 한집에 있어…” 어색하긴 대영이도 마찬가지. 모기만한 소리로 노래를 이어가는 모습에 어른들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삼촌에게는 그 모습마저도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온 가족이 카메라 앞에 앉아 “우리 아들 윤성이 사랑해! 백두산부대 장병 모두 사랑합니다!”를 한목소리로 외친 후 촬영이 끝났다.

이날 촬영한 영상편지는 CD로 제작해 사보와 함께 부대로 보낼 예정이다. 이 영상이 윤성 씨의 물론 백두산부대 장병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길고 긴 더위 끝에 찾아오는 선선한 바람처럼 말이다.



Kaiwebzine.com
이날 촬영한 동영상을 <Fly Together> 사보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펼쳐진 두 번째 로맨스



글 고정의협력팀
최준영 사원



6년 전 가을, 여자 친구와의 첫 여행으로 춘천에 갔었다. 풋풋한 대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는 청량리, 상봉역을 거쳐 가평역으로 가는 경춘선 열차에 올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목이 아플 만큼 수다를 떨어도 이야기가 마르지 않았고, 마냥 길 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르던 그날이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하다.

그로부터 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사천으로 내려와 KAI에 취업을 했다. 세상 물정 모르던 내가 어느덧 사회의 뜻뜻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던 지난 6년 동안, 늘 곁에 있어준

여자 친구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였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춘천 여행은 풋풋한 대학생 시절의 추억을 되새긴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었다.

추억과 낭만을 싣고 달리는 레일바이크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던 〈봄봄〉, 〈금띠는 콩밭〉, 〈소나비〉 등은 우리에게 친숙한 문학 작품이다. 이 소설을 쓴 故김유정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춘천에는 김유정 문학촌(김유정 생가), 김유정역, 김유정역 레일바이크 등 그의 이름을 딴 명소가 여러 곳 있다. 그중 김유정역에서부터 강촌역까지 약 7km 이상 이어지는 레일바이크는 춘천에 가면



1 레일바이크 입구에는 사진 촬영하기 좋은 포토 존이 여럿 있다.

2 강바람이 불어 시원했던 강촌의 글램핑장 야경.

3 레일바이크는 김유정역에서 강촌역까지 총 8.5km 구간을 이동한다.

4 6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이름다운 나의 예비 신부.

5 하늘까지 달을 듯 가자련히 정돈된 메타세쿼이아길.



2 꼭 타봐야 할 추천 코스다.

6년 전 춘천 여행에서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라 우리는 이번 여행도 첫 코스로 이곳을 찾았다. 한 여름의 무더운 날씨였지만 레일바이크에서 바라본 시원한 풍경에 마음이 상쾌해졌다. 전체 구간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속도도 제법 빨랐다. 중간중간 지나는 터널 속 냉기와 얼굴에 부딪히는 마파람이 태양에 뜨겁게 달궈진 몸을 말끔히 식혀주었다.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쉴 새 없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다 보니 어느덧 종착지인 강촌역에 도착했다. 무더위에 쉽게 지치면 어찌나 내심 걱정했는데, 출발이 좋은 것을 보니 이번 여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같아 걱정이 설렘으로 바뀌었다.

3 하루를 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해가 지자 캠핑장에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얼음을 동동 띠운 맥주와 함께 바비큐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신혼여행에 가서 무엇을 할지, 신혼집에는 어떤 가구를 들일지,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지. 이런 행복한 수다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떨다가 결국 새벽이 돼서야 돌아떨어지고 말았다.

4 6년 전 모습 그대로, 남이섬

다음 날 아침 캠핑장을 나온 우리는 곧장 남이섬으로 향했다. 6년 만에 다시 방문한 남이섬이지만 무엇 하나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였다. 관광객 사이에서 들리는 일본어와 중국어, 자전거를 타고 섬 이곳저곳을 누비는 아이들과 연인들. 하늘까지 달을 듯 가지런히 정돈된 메타세쿼이아길 그리고 그곳을 다시 찾은 우리 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셀카봉이 생겼다는 정도? 6년 전에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줍게 말을 걸었고, 반대로 우리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연인과 가족이 꽤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셀카봉 덕분인지 도통 촬영을 부탁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글램핑 즐기며 대학 추억 되새겨

가평&강촌 지역은 새 학기를 맞거나 시험이 끝난 뒤 MT를 가는 대학생들의 성지로 불린다. 우리는 신입생 시절 가평 대성리 MT촌에서 동아리 입단 환영식을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강촌 인근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것 저것 준비하지 않아도 텐트부터 쿠션도구, 바비큐 용품, 샤워 시설까지 모두 갖춘 글램핑 시설은



남이섬에서 우리는 그렇게 옛 기억을 회상하며 자전거를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1시간 남짓을 보냈다. 짐통더위로 지쳐있을 때쯤 거짓말처럼 소나기가 내려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주었다. 한바탕 쏟아진 소나기가 그치자 우리는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향했다. 드라마가 촬영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곳에는 수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배웅준과 최지우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도 최지우와 배웅준처럼 포즈를 취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변함없이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처럼, 예전 그대의 모습으로 자리 를 지키고 있는 남이섬이 우리를 닮은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해졌다.

으로 공중에 떠 있는 듯 재미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낮보다 야경이 훨씬 아름답다는 정보를 얻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해가 질 때를 기다린 후 다시 이곳을 방문했다. 밤에 다시 찾은 의암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소양강 처녀 동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춘천의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소양2교가, 왼쪽에는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했던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낮에 숨기고 있던 화려한 조명을 뿜어내며 주위를 빛나들일 듯 아름답게 빛났다. 이런 야경을 넋을 잃고 보고 있자니 '소양강 처녀'의 노랫말이 입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 사이에서 조용히 서있는 소양

강 처녀상이 웬지 처량해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소양강 처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추억과 낭만이깃든 춘천 여행을 마무리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우리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막 예악을 마친 상태다. 여행은 추억을 남기고 추억은 내일을 계획하게 하는 힘을 지닌 것 같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더 기대하게 만드니 말이다. 추억을 되새기고 내일을 기약한 두 번째 춘천 여행도 대성공! KAI 사우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소양강 처녀는 밤에 더 빛난다

남이섬을 뒤로하고 향한 춘천 의암호에는 故반야월 작사가의 '소양강 처녀'를 모티브로 한 높이 7m의 소양강 처녀 동상이 있다. 동상 바로 옆에는 길이 140m의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유리 바닥 사이로 의암호의 파란 물결이 고스란히 비쳐 불거리를 더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스카이워크 입장료가 무료였지만 아쉽게도 올 9월부터는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한다. 스카이워크를 끝까지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의암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뻥 뻑린 유리 바닥을 배경

- 1 아경이 아름다워 하루에 두 번이나 찾았던 의암호의 스카이워크.
- 2 소양강 처녀 동상을 배경으로 인증샷 한컷!
- 3 올가을 결혼을 앞둔 우리의 두 번째 춘천 여행도 성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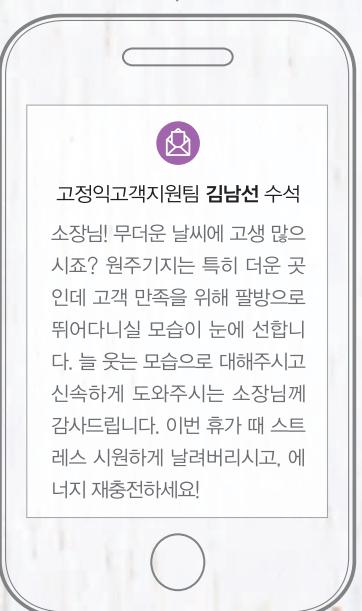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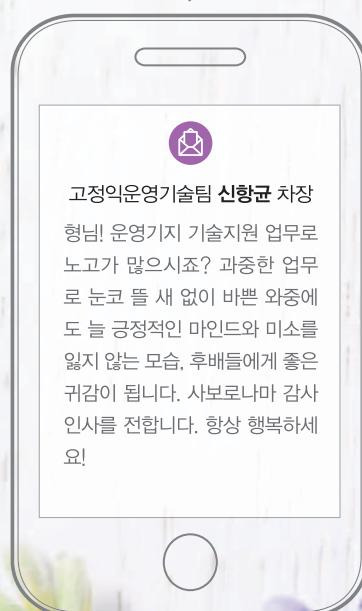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고마운 선배, 둘도 없는 동기, 아끼는 후배,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거래 고객 등 소중한 지인들에게 안부를 보내세요.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기프티콘을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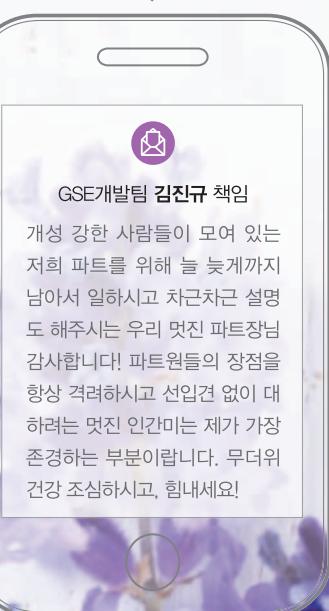
✉ 고정익검사직 흥성국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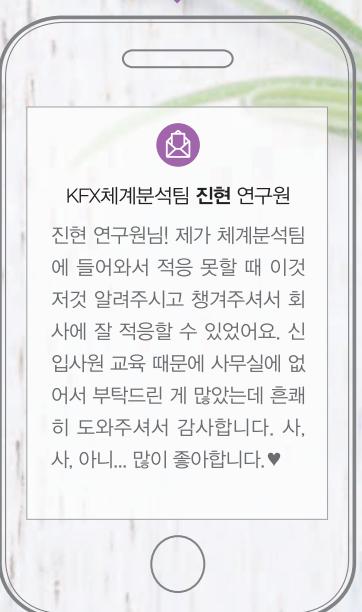
✉ 고정익LS개발팀 김영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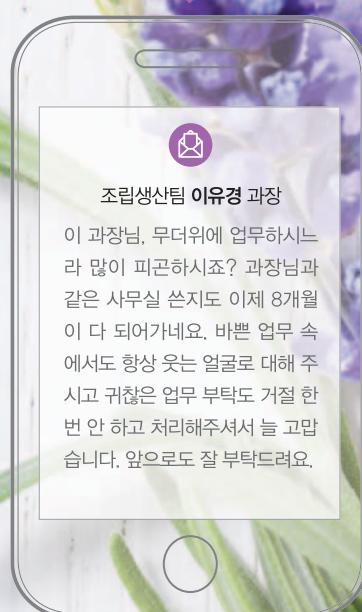
✉ GSE개발팀 이대경 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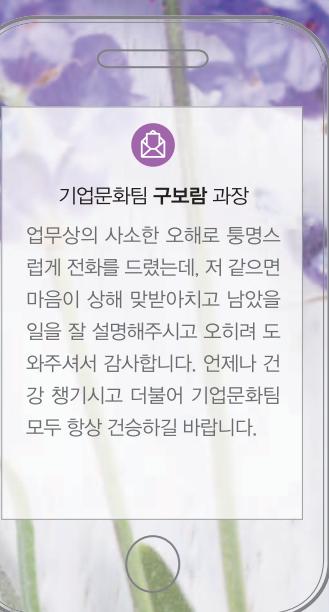
✉ KFX 체계분석팀 여성구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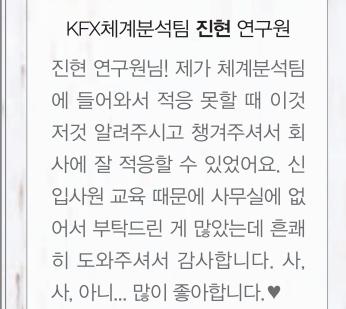
✉ 생산지원팀 정기훈 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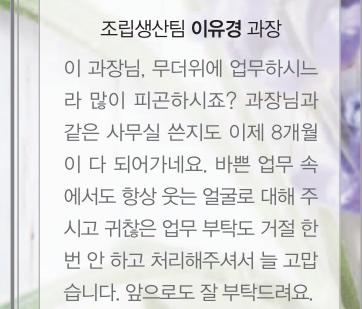
✉ KFX항전체계팀 최현석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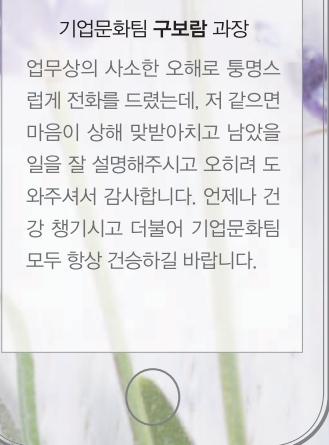
✉ KFX체계분석팀 진현 연구원



✉ 조립생산팀 이유경 과장



✉ 기업문화팀 구보람 과장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GIFT BOX

〈Fly Together〉는 KAI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자연에 소개할만한 KAI인, 팀워크가 좋은 부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고 싶은 동료, 특별한 사연의 가족 등을 추천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추천이 함께 소통하는 〈Fly Together〉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KAI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는 200호의 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KAI 17년의 발자취와 사보 변천사 등 많은 분들이 200호까지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을지 감사한 마음마저 듭니다. 앞으로도 MRO 및 APT사업 수주 등을 통해 KAI가 한층 더 도약하여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상임 독자님(경남 마산시 진북면 예곡리)

사보가 어느덧 200호를 넘어서고 있다니, KAI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다른 어느 회사 사보보다 디자인과 내용이 충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호를 넘어 500호, 1,000호를 돌파하기 응원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없겠지만 KAI가 영속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야기 한마당' 칼럼에서 사보에 바라는 직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인증샷 코너가 가장 좋았습니다.

강영순 차장(조립생산기술팀)

먼저 〈Fly Together〉의 200호를 축하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200호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한 점, 우리가 하고 있는 점, 우리의 비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보에서 '추억의 여행' 칼럼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부모님의 즐거운 여행을 아들이 〈Fly Together〉를 통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흐뭇하게 읽은 칼럼입니다.

황철원 연구원(항전SW팀)

200호까지 멋진 내용이 가득! 정말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을 부탁해' 코너에서 부모님을 위한 일일세프 도전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냥 어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손수 요리를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 뒹굴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강상희 차장(기체생산팀2직)

항상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World Today' 코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우리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의 20세기 정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항공산업 현황은 물론 최근 방위산업 경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잘 소개해주시셔서 좋았습니다.

전용옥 조장(최종조립생산팀6직)

〈Fly Together〉를 읽고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엽서 또는 이메일(boram@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본부별 사내기자단

전략기획본부 신사업전략팀 박주호 사원 055-851-0852
재경총괄 지금팀 최준형 사원 055-851-9711
국내사업본부 사업관리3팀 정종원 과장 055-851-6175
해외사업본부 수출기획팀 이유리 과장 055-851-9583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김민준 사원 055-851-9097
개발사업관리본부 고정익개발사업관리팀 김미영 사원 055-851-1578
고정익개발본부 KT-1체계팀 손영호 선임 055-851-9956
회전익개발본부 LAH체계중합팀 노나영 연구원 055-851-9140
대전연구센터 우주사업팀 박용현 사원 055-851-6737
생산본부 생산계획팀 장재완 차장 055-851-9353
CS본부 운영기획팀 안재운 과장 055-851-2867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이창영 사원 055-851-9495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아래 주소를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kaiwebzine.com

사보 〈FLY Together〉 웹진 오픈 축하 이벤트

웹진에 댓글 달고 상품 받으세요! 편리하고 재미있게 웹진으로 사보 〈FLY Together〉를 보셨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퀴즈

빈칸을 채워주세요



Q 동상 바로 옆에는 길이 140m의 소양강 00000가 있는데, 유리 바닥 사이로 의암호의 파란 물결이 고스란히 비쳐 볼거리를 더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입장료가 무료였지만 아쉽게도 올 9월부터는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한다. 00000를 끝까지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의암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추억의 여행’ 중에서)

Congratulations!



WEDDING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8. 27

이경선 KFX비행제어팀 연구원



FAMILY

행복이 늘었어요!



7. 22

강호 헬기비행계획팀 선임 / 득녀

8. 5

전성수 KFX기체해석팀 선임 / 득남

8. 7

김영일 헬기세부계통팀 선임 / 득녀

8. 10

우승수 기체생산기술2팀 과장 / 득남

